

군살 빼는 국민銀, 유휴부동산 판다 **8**

김택진의 엔씨소프트, 1분기 최대 실적 **13**

‘동양사태’ 투자 피해자 6년만에 구제길 열렸다

대법, 4925억 집단소송 최종 허가
유안타증권 재항고는 기각
증권 집단소송 역대 최대규모
조만간 손해배상 심리 돌입

2013년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거대한 충격을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6년 만에 본격화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3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1245명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을 상대로 낸 4925억 원대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번 재판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심리에 앞서 ‘제외 신고’를 받고 있다. 제외 신고는 집단소송 구성원이 해당 재판의 효력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 행위다.

재판부는 제외 신고에 따른 보정(구성원의 범위)이 완료되면 변론기일을 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결정 고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2013년 10월 5개 주요 계열사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가 잇달아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4만여 명이 1조7000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당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들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무리하게 발행했다가 투자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 A 씨 등은 2014년 6월 법원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소송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데만 6년이 걸렸다. 피해자들과 유안타증권 측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송사를 벌였다.

1·2심 재판부는 “집단소송을 낸 원고들의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불허했다. 그러나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018년 7월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집단소송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다른 대표당사자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 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집단소송을 허가했다.

이에 불복한 유안타증권이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2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되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최종 허가됐다. 김중용 기자 deep@



첫 민간 ‘규제 샌드박스’ 출범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축하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정 총리, 박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은 현대차 사장.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 경제, 코로나 이후 형 회복”

전문가 전망 및 제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3월부터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 서비스업 경기가 급격히 위축하면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대외수요가 본격적으로 위축되면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그동안 선방했던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초기 ‘U자형’에서 ‘나키형’으로 더 암울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나키형은 완만한 곡선의 ‘U자형’보다도 한층 더딘 속도로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올해 성장률은 대부분 마이너스를 예상했고 한국형 뉴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내년 초까지 이러한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백신이 나온다면 점증적으로 회복하는 나키형 구조를 밟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

2008년 ‘금융위기 때 경기회복 형태’



전망하에 사태가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V자형과 나키형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침체 확률이 높다”며 L자형을 전망해 가장 어둡게 봤다.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전문가 대부분이 마이너스를 예상했다. 지 연구원은 “-1.2%로 본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은 낙관적”이라며 “퍼센트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숫자는 의미 없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제로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확실하다”며 “다만 기준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표현했다면 지금 상황에선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5월 수출이 반토막 나기 시작해 이제부터가 관건”이라며 “2분기 이후 앞으로 얼마나 장기화하느냐에 따라 성장률에 변동이 있다. 2분기는 역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4면에 계속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기업 현금확보 사활...대출 28兆↑ ‘역대 최대’

4월 은행 가계대출 4.9兆 증가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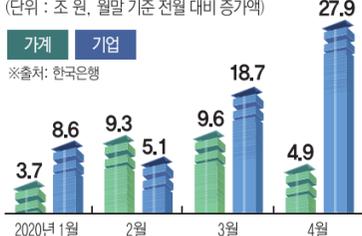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로 은행 기업대출 증가세가 두 달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모두 역대 최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반면, 가계대출 증가세는 석 달 만에 둔화했다.

가계대출은 당분간 확대되기 어려울 것이라 관측이다. 반면, 기업대출은 기업 수요와 정부 지원정책이 겹치면서 예년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중 은행 기업대출은 전월 대비 27조9000억 원 증가한 929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8조7000억 원 증가 이후 두 달 연속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부문별로는 대기업이 11조2000억 원, 중소기업 16조6000억 원, 개인사업자가 10조8000억 원씩 늘었다. 역시 각각 지난해(10조7000억 원, 8조 원, 3조8000억 원)에 이어 두 달째 사상 최대 증가세다.

이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운전자금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유동성 확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상환 등을 위해 은행 대출로 눈을 돌린 데다, 정부와 은행들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결과다.

가계·기업대출 증가 추이



반면, 정책모기지론을 포함한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에 비해 4조9000억 원 증가한 915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4조5000억 원) 대비 증가폭은 크지만, 사상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던 직전월(+9조6000억 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조9000억 원 늘었다. 다만, 2월에 7조8000억 원 증가한 이후 두 달 연속 증가폭이 둔화했다.

코로나19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선수요 효과 완화, 입주 물량 축소, 작년 말 12·16 대책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마이너스통장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1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1월에 6000억 원 감소한 이후 석 달 만의 축소세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가 kimnh21c@

40兆 기간산업안정기금, 항공·해운만 지원

당초 조선·차 등 7개서 2개로 축소
대상서 빠진 업종 일부 추가 가능성

40조 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 업종에 지원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기금)’의 지원 업종이 기존 7대 기간산업에서 항공·해운업으로 축소됐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토록 했다. 기금심의위원회의 추천 권한도 산업부장관에게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은행법 시행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는 것으로 지난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세부 조건이나 지원 절차는 향후 2주 정도 걸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내용에는 항공, 해운을 비롯해 기계, 자동차, 조선, 전

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포함됐으나, 시행령 입법 예고 기간에 관계부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수정됐다. 타 업종은 금융위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국장은 “7대 기간산업 중심으로 지원되는 것”이라며 “해운과 항공업은 자금 수요가 제기됐기에 포함했다. 이외에도 수요가 있으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대상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면에 계속
곽진산 기자 jinsan@

박원순 “시민 참여형 ‘K방역’ 글로벌 표준 자리잡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트 코로나’ 정책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서울연구원 주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표준을 이끄는 서울의 정책’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뉴노멀에 익숙해져야 한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세계 표준을 만들 5대 전략으로 △새로운 방역모델 △시민 살리는 경제방역 △사회적 불평등 대응 △4차 산업혁명 전환 △국제연대 5개 표준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의 감염병에 대응하는 기준이 될 시민 참여형 방역은 공공의료체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며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시스템이

공공병원 확충하고 민간병원과 협력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역·민생경제·사회 불평등 대응 등 표준도시 비전 제시 동북아 도시와 협력하는 국제 연대 방역시스템 만들어야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성공적인 방역을 한 것은 시민이 공감하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어가는 시민참여형 방역, 시민민주주의형 방역 때문”이라며 “시민 방역은 앞으로 감염병에 있어서 새로운 표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성공적인 방역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공공의료체계 강화 정책을 꼽았다.

그는 “갑작스런 확진자 증가에도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고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있었다”며 “민간병원과 협력하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 “각종 재난위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역물자 비축, 재난 관련 기구의 재편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찬성 입장도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충격을 받은 집단은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이 극단적 상황에서도 경제적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조속하고도 전면적인 도입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동북아 도시와 협력하는 감염

병 대응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가를 뛰어넘는 국제적 방역시스템,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방역모델”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짜여진 판 안에서 전술적 사고를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짜는 전략적 사고로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 문명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명을 향한 판값이, 새로운 탈바꿈을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온 시기에 인근에 있던 시민 1만905명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경찰청과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구해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카드사로부터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 및 자가 격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대형마트에선 재난지원금 못쓴다(X)... “임대점포는 가능”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한해 결제할 수 있다.

이마트는 13일부터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 개 임대매장 중 30%가량인 800여 개 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사용처는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미용실·안경점·약국·사진관 등 소상공인 운영점포서 쓸 수 있어 대형마트 3사 전국 2700개 매장

중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은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구두·얼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등 총 26개 임대매장 중 11곳에서 긴급재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월배점에서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화원 △차량

정비소 △세차장 △치과를 포함해 총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트레이더스 구성점의 경우 △안경점 △약국 △차량정비소 △세차장 △동물병원 등 총 17개 임대매장 중 6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도 전국 124개 매장에 입점한 1444여 개 임대매장 가운데 55.1%가량인 795개에서 13일부터 지급하는 정부 지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임대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안경점, 카페, 음식점 등이다. 롯데마트는 매장 곳곳에 사용 가능 매장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홈플러스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 개 임대매장 중 1100여 곳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이로써 전국 422곳의 대형마트 내 2695개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셈이다.

대형마트들은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을 안내하는 고지물을 매장 곳곳에 비치해 고객들이 해당 매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매장 활성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대상 임대매장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문도 고지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내에서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역시 코로나 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임대매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대매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능력소핑

실력 300% UP ▲
개발 200% UP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평생능력개발, 국가자격시험, 해외취업, 외국인근로자고용, 숙련기술장려, 일학습병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블라인드 채용 등 국민의 일자리를 위한 국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능력중심사회를 선도해갑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옥정대방노블랜드 전용 84㎡〉

기존 분양권 시장 요동... 양주 아파트 한달 새 2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분양권 매매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까지 주택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이천시와 광주 시, 여주시 등 경기도 8개 시·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강화된 주택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비(非)수도권이라도 광역시에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 들어서는 주택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가 전매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약 당첨 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되파는 투기성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수도권이나 지방 광역시라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으면 청약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전매 제한이 약 2년으로 늘어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통상 아파트가 완공된 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고쳐 8월부터 전매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번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분양권 매매시장이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그 물량이 한정된 데다 갈수록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권 광역시, 입주 때까지 전매금지 8월 지나면 거래 가능 물량 '급감' 시흥 분양권, 3000만원 프리미엄 다시 규제받는 부산도 '몸값 상승'

록 분양권 전매를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번 규제에 포함된 지역에선 벌써 분양권 가격 상승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선 전매 규제 강화가 발표되자 7억1800만 원에 전용면적 84㎡형 분양권 매물이 나왔다. 2018년 분양가(4억1800만 원)에서 웃돈이 3억 원 붙었다. 직전 실거래가(6억8790만 원)와 비교해도 프리미엄이 3000만 원 넘게 커졌다.

경기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아파트 분양권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단지 전용 84㎡형 분양권은 12일 웃돈이 8000만 원을 붙여 5억4230만 원으로 호가가 뛰었다. 같은 주택형 기준으로 호가가 가장 높다. 실거래 최고가(5억2310만 원)도 웃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84㎡형은 3억4240만 원에 거래됐다.

시흥시 은행동 S공인 관계자는 "전매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 전매가 가능한 기존 신축 단지는 상당한 희소성을 갖게 되고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옥정동 O공인 관계자 역시 "발표된 지 하루밖에 안 돼서 전망을 내놓기는 어렵다"면서도



“급히 집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들은 전매가 되는 단지를 찾아다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매 제한 강화 여파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 광역시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깜짝 특수’를 봤던 부산에선 특히 그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부산에선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지 1년도 안 돼 다시 전매 제한이 강화된다.

13일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를 앞둔 부

산 남구 용호동 '데시앙 해링턴 플레이스 파크시티'에선 전용 59㎡형 조합원 입주권 호가가 11일 3억3780만 원까지 올랐다. 분양가(2억3780만 원)보다는 1억 원, 직전 실거래가(2억9728만 원)보다는 약 4000만 원 비싸다.

용호동 D공인 관계자는 “학군이나 입지 등에 따라 기존 분양권 추이가 달라질 것 같다”며 “청약 과정에서 인기를 끈 단지에서 조금씩 분양권 매도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전매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서 교수는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며 “기존 분양권에 대한 열풍이 주택시장 전체를 들썩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건설업계 “전매규제 前 막차 타자” ‘14만 가구’ 밀어내기 분양 나선다

경기·인천 6만 가구 예정

8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되면서 그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부터 8월까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만 14만 가구에 달한다. 건설사들이 정부의 강화된 주택 분양권 전매 행위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공급을 서둘러 방치하면서 올 여름까지 분양될 신규 단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을 못 팔지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당첨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또 비규제 지역의 민간 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 계약과 동시에 바로 전매가 가능했다.

업계에 따르면 5~8월 경기지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4만4515가구에 달한다. 월별로 △5월 1만6523가구 △6월 9377가구 △7월 1만752가구 △8월 7863가구 등 대규모 공급이 이어진다.

인천의 경우 1만969가구가 5월에 집중적으로 분양된다. 이달부터 8월까지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1만5561가구 규모에 이른다.

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부산에서 1만3064가구, 대구에서 1만5663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울산은 4838가구, 광주는 3406가구, 대전은 2656가구가 각 지역에 풀린다.

이에 수도권(서울 포함)과 지방광역시에서 5~8월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13만

수도권·지방광역시 분양 예정물량 (단위: 가구 수, 2020년 5~8월 기준)

	5월	6월	7월	8월	총계
경기	16,523	9,377	10,752	7,863	44,515
인천	10,969	2,780	-	1,812	15,561
대전	760	1,476	420	-	2,656
광주	2,538	868	-	-	3,406

* 출처: 직방

7698가구에 달한다. 연말까지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인 23만7730가구의 57.9%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 정부의 일관된 규제 기조를 일찌감치 간파한 건설업계는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8월로 예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최대한 물량을 풀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다.

올해 3~4분기로 계획된 분양 일정을 앞당기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8월까지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전체의 6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이다.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내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짧은 전매 제한 기간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돼 왔다.

올해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월까지 전국에서 3만3147건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거래는 1만1049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8403건 대비 31.4% 급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이 규제를 피해 8월 이전까지 밀어내기 공급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분양권 전매 강화 규제 시기를 앞당겨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대한민국 세대주라면 누구든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KB국민카드로 받으세요

지급대상 전국 가구의 세대주 | **지급금액**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차등

* 지급대상 확인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

신청방법 · KB국민카드 홈페이지(PC, 모바일), 모바일 앱, Livv Mate 앱

· KB국민카드, KB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 5월 18일(월)부터 영업점 신청가능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가능 카드

KB국민 개인신용/개인체크카드 전체, 단, 아래 일부카드는 이용불가

* 이용불가 카드 | KB국민 기업/신용/가족/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BTS체크)/BC체크/버스 유가보조카드/아이사랑 및 아이행복 전용카드/직원복지카드 계열/하이패스카드(개인, 기업)/한세대학교 학생증 체크카드/화물차 유가보조카드 전체

지급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내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 시 포인트 차감

* 백화점,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 사용 불가 * 사용기간 경과 시 차감 불가

온라인 신청기간 2020.5.11(월)부터 (단, 첫 주는 5부제 운영)

* 23시간 운영 (23:30~00:30 시스템 점검)

5.11(월)	5.12(화)	5.13(수)
생년 끝자리 1,6	생년 끝자리 2,7	생년 끝자리 3,8
5.14(목)	5.15(금)	5.16(토) 이후
생년 끝자리 4,9	생년 끝자리 5,0	생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이용 전 확인사항 · 각 지자체별 일부 내용이 상이하오니,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본 행사는 KB국민카드 영업정책 및 제휴업체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카드 관련 문의 :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 KB국민카드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512-01442-ADP (2020.05.12 기준)

수위 높은 KDI '경제 불확실성 확대' → '경기위축 심화'

“코로나禍 부진 서비스업 넘어 수출·제조업 등 전반 확대” 대외경제연구원,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5.8%p 내려 -2.6%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경제동향 5월호'에서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수위를 '불확실성 확대'에서 '경기 위축 심화'로 상향 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영향이 서비스업을 넘어 수출, 제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3월 소매판매액과 서비스업생산이 급감하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빠르게 위축되는 모습이다. 전년 동월 대비 소매판매액지수 감소 폭은 2월 2.4%에서 3월 8.0%로 확대됐으며, 서비스업생산은 2월 1.2% 증가에서 3월 5.0%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3월 78.4포인트(P)에서 4월 70.8P로 급락했다. 파급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2월 49만2000명 증가에서 3월 19만5000명으로 전환됐다.

그나마 투자는 기저효과 등이 반영되면서 반도체와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단 향후 설비투자는 기업 투자심리 악화로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은 대외수요 위축으로 4월에는 모든

품목과 지역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KDI는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가 급락했고, 주요 수출국의 이동 제한이 진행 중인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외 수요 부진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부진은 국내 자동차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날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업데이트)'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기존 전망(3.2%)보다 5.8%

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국가별로는 선진국 전망치를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내렸다. 미국(-6.0%), 유로지역(-7.3%), 영국(-6.7%), 일본(-6.2%) 등 대부분 선진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플러스 성장을 예상한 국가는 중국(2.2%)과 인도(2.0%),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가 전부다. KIEP는 중국과 인도 정도만 코로나19 중식을 전제로 'V자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서울 누빌 자율주행버스 황보연(왼쪽 세 번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이 12일 서울 상암 문화광장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실증' 발대식에 참석, 유동균(네 번째) 마포구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자율주행 셔틀버스와 공유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6월 16일부터 상암 지역 순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체험 신청 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서울시

'출퇴근 30분' GTX의 역설

정책 효과보단 수도권 부동산 상승 부추길 가능성 기존 역세권 거주자, 거주비 절감 위해 이주 고려

2시간에 달하는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줄인다는 목표로 15조 원 이상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가 정작 개통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호정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 맡아 11일 발표한 '수도권 고속 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는 GTX 개통 이후 GTX 정차역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SRT 개통 이후 정차역인 동탄역 반경 1.5km 이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 변화가 높았다. 또 영국의 GTX인 크로스레일의 경우 노선 선상에 있는 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34만4000파운드에서 2016년 42만1000파운드로 약 22%나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런던 주택매매 가격 평균 상승률 14% 대비 8%포인트(P)나 높은 수준이다.

연구팀은 특히 가장 빨리 개통하는 GTX-A 노선의 잠재적 이용자 및 해당 영향권의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연신내와 킨텍스 인근 거주자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외곽의 새로운 거주지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서, 연신내, 동탄, 킨텍스역 인근에 사는 월세 세입자들 다수는 현 주거지보다 대중교통 기준 30분 이상 떨어진 거주지로 이사를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향후 GTX-B, C노선에서도 정차역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주거지 이전이 예고된다. 결국,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으로 줄이려는 GTX의 애초 목표는 사라지고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호정 선임연구위원은 "GTX 정차역 주변의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해 신혼희망타운·청년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을 연계하고 정차역 주변의 토지이용·지가 변화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3차 추경이든 금융완화가든 경제주체 살릴 정책 절실”

포스트 코로나 韓경제 전문가 제언

▶1면서 계속

시장 의존 대신 '강한 정부' 필요 비대면 집중 육성 성장동력으로

정민 연구위원은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0.3% 성장할 것으로 본다. IMF 전망은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경제활동 자체를 막아버린 유럽 등에 비해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한국형 뉴딜정책이 효과를 본다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대안으로는 전문가 모두 형식이 어떻든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뉴딜이든 3차 추경이든 금융완화는 경제주체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수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전이다. 이런 시기에는 가계와 기업 경제주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일단 살리는

경제전문가 한국 경제 전망

	한국 경제 전망	올해 성장률 전망	포스트 코로나 대책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йки형	마이너스	경제 주체 살리는 데 올인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나йки형	마이너스	비대면·디지털 산업 집중 육성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보류	0.3%	일자리 창출 위한 SOC
성태윤 연세대 교수	나йки형	마이너스	효과 큰 분야에 신속한 재정 지출
김상봉 한성대 교수	저형	-1.6%	보류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나йки형	2분기 마이너스	GVC 재편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욱 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세계가 좀 바뀐다.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될 것이고 디지털도 가속화할 것이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도 있을 것”이라며 “예전에는 인건비가 싼 데로 확장했다면 지금은 가까운 지역 위주나 리쇼어링 등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자유화 시대 들어서 시장에 의존했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강한 정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일단 뉴딜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 SOC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고용안정성, 특히 소득안정성 부분이 중시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뉴딜이 됐든, SOC가 됐든 일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교수는 “지금까지 발표된 다양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한두 달 하고 끝날 일이 아니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하고 이왕 재정을 지출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효과가 큰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여행, 관광 업종의 경우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로 업황이 크게 회복되긴 어려울 것이며 제조업 역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비대면 및 디지털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면 기존 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별용자 통해 민간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부,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탐사사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간 '자원개발'이 중심이던 해외자원개발 정책 초점을 '자원안보'에 맞추고, 이를 위해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9년까지의 국내외 자원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중장기 종합 계획인 '자원개발 기본계획(2020~29)'을 확정·발표했다.

한국은 국가 에너지 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과거 대규모로 추진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반성하며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세계 에너지 자원시장의 큰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및 차별화 전략을 수립했다. 또한 과거 자원개발을 중심의 양적 목표보다는 자원안보 개념의 재정립과 함께 새로운 자원안보 지표를 제시했다.

우선 특별용자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민간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리스크가 커 민간 참여가 쉽지 않은 탐사사업 지원

을 확대한다. 또한 공기업은 탐사사업 중심으로 민간 협력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자원개발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석유·가스는 북미, 중동, 신남방·신북방을, 광물은 중남미와 동남아·대양주 등 6대 전략 지역을 설정해 차별화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리튬·코발트 등 신산업 부품·소재의 원료광물 확보를 위해 핵심 광종을 설정하고, 안정적 확보를 위한 종합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양적 물량 확대에 치중했던 자원개발 목표를 위기노출도, 대응력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해 자원안보 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자원안보 상황을 종합 진단할 수 있는 '한국형 자원안보 진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운영된 '개발-도입-비축'의 연계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 문제해결 등 전략적 기술개발 추진, 자원개발 서비스산업 육성,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등 자원안보 인프라도 확충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화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자원개발 전략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며 “자원개발 기본계획을 토대로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100명 넘어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누적 1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27명 증가한 1만93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27명 중 5명은 해외유입, 22명은 지역발생 사례다. 지역 발생 사례 중 21명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

진자다.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11명, 확진자 접촉자는 10명이다. 기타 지역사례 1명은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는 이날 0시부터 12시까지 9명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는 총 10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4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전북 1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이다. 감염경로별로 클럽 방문자는 73

명, 가족 등 접촉자는 29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7명으로 가장 많다.

클럽 방문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확진자 및 추가 감염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이태원 클럽 등에서 발생한 감염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명부에 있는 명단이 정확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진신고나 추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한국판 뉴딜 과감하게 추진... 일본 ‘청’ 승격 서둘러라”

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고용보험 확대 치밀하고 섬세해야 ‘n번방’ 등 성범죄 처벌 강화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도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 등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안 등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 말이 아닌 현실로 실현되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눈앞의 위기를 보면서 머뭇거리려 여유가 없다. 전문가들이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하는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과감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 과감한 투자로 정보기술

(IT) 강국의 초석을 깬 경험을 되살려 달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는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섬세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4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일환 기자 whan@

“법사위 사수” vs “여당이 가져야”... 원구성 살아싸움

〈통합당〉

〈민주당〉

김태년 “협의 안되면 표결” 통합당 “우리 몫 7개” 주장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배분을 둘러싼 여야의 살아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적극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육상속 상임위’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장과 예결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발의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가져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 등에 대해 야당의 견제가 가장 치열한 곳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안과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관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표결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 구성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지난 20대 때처럼 원 구성 협상에서 ‘양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자신감이 깔렸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름을 적어내 선출하게 돼 있다. 과반을 차지한 여당이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 단독 원 구성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법사위를 가져오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법사위 기능 축소를 조건으로 내거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의 핵심은 법제사법위의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다. 체계·지구 심사 문제를 국회 내 법률전문가에 맡겨 법사위가 상원처럼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총선에서 의석수가 103석(미래한국당 포함)으로 쪼그라든 통합당은 원 구성 협

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당은 현재 18개 상임위에서 적어도 7개는 통합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사위와 예결위원은 여당 견제를 위해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의석수의 무게추가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만큼 통합당의 협상 카드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힘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과 ‘법사위 사수’ 방침을 내건 통합당이 21대 국회 출발과 함께 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돼야 하지만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원 구성 협상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여당이 통 크게 양보와 배려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이석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위원회'에서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 결의 및 수임기관 지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시민당과 합당... 177석 ‘원팀’ 구성

“한국당 교섭단체 추진은 물염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마무리짓고 원팀으로 거듭나는 수순이다. 민주당은 미래한국당이 제2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다.

이석현 중앙위원회 의장은 12일 중앙위 온라인 투표 결과 중앙위원 657명 가운데 4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 (486표), 반대 2% (11표)로 '민주·시민당 합당 결의 및 합당 수임기관 지정의 건'을 가결했다고 발표했다. 합당 절차를 마칠 수임기관으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지정됐다. 합당이 완료되면 민주당 의석은 177석(지역구 163석·비례대표 14석)이 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시민당은 13일 수임기구 합동 회의(최고위원회의)를 거쳐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고를 통해 통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시민당에 참여하게 된 것은 통합당과 한국당의

반칙과 편법에 대응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돕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겨냥해 “뿌리가 같은 한 몸통인데도 마치 하나의 먹이를 두고 머리끼리 아귀다툼하는 쌍두뱀처럼 상임위원장 자리와 국고보조금을 두고 다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총선 결과는 민의인데 중소정당으로 심판받은 다른 당과 합당해 필수 교섭단체를 만든다면 이는 양자 모두 민의를 거스르고 21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물염치한 행위”라면서 한국당의 자체 교섭단체 구성설을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또한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은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이 같은 당이라고 생각하고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 민의에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08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KYOBO 교보증권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외 학원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뱅크, 롯데뱅크, 명품뱅크, 신한뱅크 등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 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리언, 무명플레이스 등
 CJ, GS25, 세븐일레븐 등 10% 청구 할인
 SKT, KT, LGU+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주유소, S-Oil, GS25뱅크
 현대오일뱅크 리타일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O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신청 후 비대면계좌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선택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라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지보유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제·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으로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계좌 시 0.014%의 주거래비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금융위기 때 실수 반복 안 돼”... 시험대 오른 3대 신평사

국제 신평사, 기준 없는 등급평가로 국가·글로벌 기업 운명 좌지우지 닷컴버블·글로벌 금융위기 초래 코로나 사태에 역할·책임론 대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 피치 등 국제 3대 신용평가사(신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다시 세계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P는 이날 코로나19 확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돼 각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 강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적으로 호황기에는 신평사와 이들이 매기는 신용등급이 별로와 닿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들의 신용등급 평가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특히 3대 신평사는 2000년 닷컴버블 붕괴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정확한 등급 평가로 위기를 초래하거나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과거의 실패를 만회할지 주목된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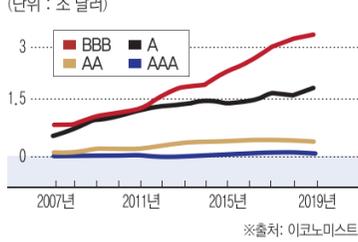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평사들은 닷컴버블이나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안게 됐다. 많은 기업 부채가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로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평사들이 3월 이후 진행한 신용등급 강등 속도는 역사상 가장 빠른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5일까지 S&P는 자사가 등급을 매기는 기업과 국가 부채의 5분의 1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하거나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렸다. 자동차와 엔터테인먼트 등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무려 5분의 3이 그런 운명에 빠졌다.

그러나 이런 신평사들의 움직임은 ‘익숙한’ 의구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꼬집었다. 신평사들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무시한 채 안이하게 신용등급을 매겼다가 위기가 터지면 뒤늦게 이를 성급하게 수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신용등급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비금융 기업 투자등급 회사채 신용등급별 시장규모 추이 (단위: 조 달러)



국제 주요 신평사 주가 등락폭 추이 ※2000년 1월 1일=100 기준



더욱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채가 심각하게 팽창한 시기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글로벌 기업 회사채 규모는 13조5000억 달러(약 1경6600조 원)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두 배 커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서 잠재적 지원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있어 신평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려되는 것은 신평사들의 신용등급이 여전히 뒤틀렸다는 의혹이다. 에드워드 알트먼 뉴욕대 교수는 이런 ‘과대평가’ 문제와 관련해 정크본드(투기등급 회사채) 바로 위 등급에 있는 회사채를 대상으로 레버리지와 유동성, 매출 등 여러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1은 정크본드였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코노미스트는 3대 신평사들이 글로벌 신용평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호황을 누리려왔으며 그에 따른 의무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3대 신평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총 95%에 이른다. 이들은 막강한 영향력에 매년 3~4%씩 등급평가 수수료를 인상해왔다. 무디스와 S&P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50%에 이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장인어른만 안 쓰셨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중에 트럼프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를 돌아보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노 마스크’ 상태로 활보해 불감증 논란을 키웠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요타, 올 영업이익 80% 급감” 2011년 이후 최악

아키오 사장 “금융위기 때보다 심해”... 글로벌 판매도 1000만대 이하로 잡아

신차 판매 기준 세계 1위인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래 최악의 실적을 예고했다.

1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지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이날 화상으로 연 실적 발표회에서 내년 3월 끝나는 2020회계연도에 영업이익이 5000억 엔(약 5조7000억 원)으로 2019년도 대비 무려 80%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이익이 1조 엔을 밑도는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이대로라면 영업이익은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나가게 된다.

도요타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회계연도 영업이익이 1년 새 2조7000억 엔 날아가 4000억 엔의 영업이익자를 냈다.

도요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5월 일본 국내 생산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 불과하다

도요타 영업이익 추이 (단위: 조 엔) ※2020년은 예상치



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올해 실적 전망과 함께 발표한 2019회계연도 매출은 1년 전보다 1% 감소한 29조9299억 엔, 순이익은 10% 증가한 2조761억 엔이었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실적이 비교적 양호해 도요타는 올 2월에 순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2019회계연도 4분기(2020년 1~3월)만 보더라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나 줄었다.

도요타는 코로나19에 따른 판매 감소와 감산의 영향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여파로 4월 중순에는 20개국에서 총 27개 공장이 가동을 멈췄다. 중국에서는 5월 생산 대수가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생산 계획도 축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공장에서 4~10월 생산을 80만 대로 잡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줄인 것이다.

도요타 아키오 도요타 사장은 이날 화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크다”면서 “일본 국내 생산 300만 대 체제를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테슬라 CEO〉

“체포하든가”... 공장 재개 강행한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캘리포니아주 프레몬트 공장 재개를 강행하며 현지 지지체와 각을 세웠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이날 트위터에 “테슬라는 오늘 앨라미더카운티 규정에 반해 생산을 재개한다”며 프레몬트 공장 재개동 소식을 알렸다. 실제로 프레몬트 시에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에는 이날 오전부터 직원들이 출근했다. 머스크는 “나는 모두와 함께 생산 라인에 있을 것”이라며 “누군가 체포된다면 나뿐이길 바란다”고도 썼다.

테슬라 공장이 있는 앨라미더카운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 등을 이유로 공장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데, 머스크가 이를 어긴 모습이다.

생산을 재개한 공장은 미국 내 유일한 테슬라의 전기차 조립 기지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하순부터 가동을 중단했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주가 8일부터 이동제한을 일부 완화하면서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었으나 앨라미더카운티가 직원들의 안전 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이에 반해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앨라미더카운티와의 갈등으로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 시에 있는 본사를 아예 다른 주

“GM은 재개하는데 실리콘밸리만 막혀” 엄격한 이동제한 지방정부 명령 맞서



로 옮기겠다고 표명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뉴섬 주지사는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자동차 기업 간 형평성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자동차 산업이 밀집한 미시간주는 이미 자동차 관련 공장 재개를 인정해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 업체들이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을 재개한다고 계획을 밝힌 상태. 심지어 캘리포니아주도 자동차 생산 재개를 허용했지만, 앨라미더카운티 등 실리콘밸리 인근 지자체는 주 정부보다 더 엄격한 이동제한 조치를 계속해 불만을 사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버진그룹 설립자〉

“항공부터 살려야”... 우주사업 파는 브랜슨

그룹 주력사업 휘청 英 정부 지원 퇴짜에 켈러틱 지분매각 추진 성사면 5억 달러 조달



위기의 ‘괴짜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이하 버진) 설립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빈사 상태에 처한 그룹 핵심인 항공사업을 살리기 위해 우주사업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버진그룹은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낸 성명에서 자회사 비에코10리미티드가 보유한 민간 우주여행 벤처 버진켈러틱 주식 약 25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 보유 지분의 약 12%에 달하는 규모다.

브랜슨이 설립한 영국 버진에어라인항공은 코로

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 버진그룹이 지분 10%를 보유한 호주 2위 항공사 버진오스트레일리아는 지난달 자발적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앞서 버진에어라인은 영국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브랜슨은 영국 정부에 공개 서한을 보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전례 없는 위기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 우리는 공짜로 대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빌린 자금은 상환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럼에도 혈세를 쓰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브랜슨은 가치가 5억 파운드(약 7600억 원)로 추정되는 개인 소유 카리브해 섬을 영국 정부에 담보로 내놨다. 지난주에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0여 명을 감원하고 개트윅공항 내 운영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버진켈러틱 지분 매각도 비판을 의식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버진켈러틱의 주가는 올해 2월 연중 최고치인 37달러에서 크게 하락해 현재는 약 20달러대에 머물고 있지만, 매각이 이뤄지면 적어도 5억 달러(약 6135억 원)를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효선 기자 hsbun@



“우리 딸은 이거 해줬어~”

뿌듯함을 선물하세요

W효도적금

자녀가 부모님 또는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효(孝) 테마 상품



기본혜택

- 최고 금리 연 1.6%(2020.05.01 기준/세전) • 오래오래 효도하세요~ 10년간 만기자동갱신
- 효도 자금 필요시 중도 인출 가능(1년 2회)



부가혜택

- 잊지 말고 전화하세요~ 부모님 기념일 알람 서비스 • 상조 서비스 할인 및 무료 컨설팅
- 치과, 안과 등 의료비 할인 정보 서비스 • 효도 여행에 필요한 환율 우대 서비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0-2012호(2020.05.04) 게시기한: 2021.04.29 · 이 예금(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군살 빼는 국민銀... '370억' 유휴부동산 판다

코로나 여파 수익 보전 비상조치 지방 폐쇄 지점 10곳 매각 추진 업황 침체에 정리 쉽지 않을 듯

KB국민은행이 순천, 부산 등 지방에 보유한 370억 원 규모의 상가 10곳을 동시에 매각한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계좌 활성화로 지점 폐쇄가 잇따르면서 유휴건물이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보전하려는 비상 조치라는 분석이다.

이번 매각은 앞선 매각 때보다 최저입찰 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해 이번 매각 역시 수월하진 않을 전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9일과 26일에 걸쳐 유휴부동산 매각작업을 진행한다. 매각 공고에 올라온 건물은 지점을 운영하기 위해 매입했던 곳으로, 이들 지점은 문을 닫은 상태다.

물건명	소재지	최저입찰가격
순천	전남 순천시	15억7200
감전동	부산 사상구	13억7500
구서동	부산 금정구	29억3300
대전원동(점)	대전 동구	47억2100
신마산	경남 창원시	18억7300
대봉동(점)	대구 중구	27억4000
북아현동	서울 서대문구	36억4500
은빛마을 자동화점	경기 고양시	2억2500
영천	경북 영천시	21억7000
노원	서울 노원구	159억8600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은 노원구에 있는 건물로, 최저입찰금액이 159억 원에 달한다. 10곳의 건물을 전부 매각한다면 가격은 36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2월 이후 3개월 만의 재매각 작업이다. 국민은행은 당시 최저입찰금액보다 가격을 낮췄으며, 매각대상 부동산을 7곳

에서 10곳으로 늘렸다. 매각대상 부동산은 점차 늘어나는데 매각작업은 더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상가건물 일부를 임대해 지점을 운영하지만,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상가 전체를 매입한 후 지점을 내는 경우도 많다. 이렇다 보니 지점을 폐쇄하면 사실상 건물 전체가 용도가

떨어지는 유휴 부동산으로 남게 돼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은행 점포 수는 2015년 1145곳에서 2016년 1139곳, 2017년 1070곳, 2018년 1068곳, 지난해 말 기준 1063곳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올해 실적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은행들이 부동산 매각에 속도를 낼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은 2분기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1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유휴 부동산 매각으로 얻은 이익은 재무제표상 단기 영업외이익으로 잡혀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동산 매각을 통해 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서지연 기자 sjy@

산은, 사회적채권 1兆 발행

KDB산업은행은 12일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1조 원 규모의 사회적채권(Social Bond) 발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회적채권은 ESG채권의 3가지 종류(녹색, 사회적, 지속가능채권) 중 하나로 조달자금을 중소기업 지원, 고용안정 등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을 말한다.

산은은 2018년 국내 최초로 원화 녹색채권(3000억 원)과 사회적채권(3000억 원) 발행을 시작으로, 지난해 8000억 원, 올해 1조 원 등 매년 ESG채권 발행을 해 왔다. 객진산 기자 jinsan@

'기안기금' 항공·해운업만 지원

▶1면서 계속

이번 40조 원 기안기금이 기간산업의 '협력업체'에도 지원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기금의 설립 취지를 고려해 기간산업의 생태계 유지에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여지를 뒀다. 금융위는 앞서 발표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안정 프로그램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것을 밝혔다.

아울러 기금의 지원 및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임기 2년의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기재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기관이 추천한 사람들로 채워진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산업부 장관이 1인을 추천토록 했지만, 수정된 입법안에는 대한상의 회장으로 변경됐다.

또한 자본의 감소, 주주의 액면미달발행 등 주식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결의를 하거나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한 경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이 국장은 "기금의 의결권이 자율 경영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확고하고 개정안에 명시한 예외사항 외에는 조항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신한銀, 빌라·다세대 '전세대출 중단' 없던 일로...

"서민 주거 안정 우려 목소리 신규대출 중단 계획 잠정 보류"

신한은행이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전세대출을 중단하려다 취소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을 중단하려 한다는 비난이 커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전세대출 중 아파트 외 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상품의 신규 중단을 계획했으나 이를 잠

정 보류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신한은행은 다세대 빌라, 단독·다가구주택 등 비(非)아파트 전세대출 대출을 15일부터 중단한다는 공문을 일선 지점에 내려보냈다.

올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세대출 대출의 신규 제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한정된 대출 재원을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치였다.

실제로 신한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대비 2조6622억 원이 늘

어 증가율이 13.7%에 달했다. 또 신규 중단을 계획한 위 전세대출 상품 중 아파트 외 주택 대상 신규 취급액 비중은 올해 1월 19%에서 4월 22%로 크게 증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신규 취급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아파트 외 주택 대상 일부 상품 제한을 통해 가계대출 속도를 조절하고자 했으나 서민주거 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신한은행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난이 이어졌다. 다세대 빌라, 단독·다세대가구 등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대표적 주거 형태다.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 대출상품을 먼저 중단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신한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요 은행은 비아파트 전세대출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비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nova@

DOUZONE 더존비즈온

www.wehago.com

대한민국 기업을 위하고! 원격근무 성공을 위하고! 재택근무 통합패키지 무상제공

- 본 서비스는 ICT 전문기업 더존비즈온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기간: 2020. 06. 30까지)
- 기업 비즈니스 플랫폼 WEHAGO의 소통과 협업에 특화된 12가지 서비스만 선별하여 업무 단절이나 보안 문제 없이 효율적인 원격근무 통합패키지를 무상으로 제공해드립니다.
- WEHAGO 홈페이지(www.wehago.com)에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 후에는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빈틈없는 재택근무를 위한 12가지 무상제공 서비스</p> <p>원격접속, 화상회의는 물론 심지어 팩스, 문자서비스(세종텔레콤 협력)까지 무료로! 한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없는 기업 업무환경을 12가지 서비스가 그대로 구현해줍니다.</p>	<p>내 PC 원격접속</p> <p>언제 어디서나 사무실의 서버 또는 PC에 접속하여 원격 화면을 보며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원격 PC의 자료를 관리합니다.</p>	<p>채팅&메신저(WE톡)</p> <p>조직과 업무 단위로 그룹 대화방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와 파일을 공유하고, 쪽지,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입니다.</p>	<p>화상회의</p> <p>국내와 해외 어떤 지역이라도 PC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화상회의, 투표, 일정 공유, 웹오피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용 메신저 서비스입니다.</p>	<p>문자서비스</p> <p>거래처, 연락처와 연계되어 고객 및 거래처 그룹을 관리하고 대량 일괄발송 등 문자 기반의 다양한 마케팅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서비스입니다.</p>	
	<p>팩스</p> <p>팩스기가 없어도 인터넷 팩스를 통해 수신되는 팩스 내용을 읽고 빠르게 확인하고,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p>	<p>메일(1G)</p> <p>개인 메일은 물론, 회사 메일까지 통합 관리하고, 간편하게 회사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전용 메일 서비스입니다.</p>	<p>전자결재</p> <p>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결재 양식을 제공하고, 모바일과 PC를 통해 비대면 요청과 가능하며, 재택근무 환경에서도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p>	<p>웹오피스</p> <p>한국, 역설, 파워포인트, 워드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는 웹 기반 오피스입니다. 이제 설치하지 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p>	<p>기밀정보관리</p> <p>조직도를 통한 직원검색, 수명도 가져서, 연락처의 통합관리 및 자동 업데이트/공유, 다양한 타인의 회사계좌번호 등 기본정보 관리 기능이 제공됩니다.</p>
	<p>WE드라이브(10G)</p> <p>회사 내 파일과 문서를 동료들과 쉽게 공유하고 검색하며, 웹 오피스를 통해 편집하고 열람할 수 있는 기업용 파일저장소입니다.</p>	<p>일정관리</p> <p>일정 초대와 공유 캘린더를 통해 동료들과 업무 일정을 공유하고, 일정과 관련된 위치, 자료, 태그, 참석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협업합니다.</p>	<p>할일관리</p> <p>해야 할 업무, 진행 중인 업무, 종료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리자는 지시한 업무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p>		

※한국어, 영어, 일본어 3가지 언어를 지원합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케뱅, 총알 장전... '아담대' 앞세워 경영 정상화 정조준

부활 노리는 '케이뱅크'

증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년 넘게 신규 대출이 중단됐던 케이뱅크가 부활을 노린다. KT 대신 BC카드를 대주주로 내세워 영업 정상화를 꾀할 방침이다. BC카드는 현재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케이뱅크는 자금수혈을 통해 신규대출 재개와 신규 금융상품 출시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신규대출 재가동, 신규 상품인 '아파트 담보대출(아담대)' 앞세워 K뱅크 정상화 = 12일 케이뱅크는 대주주적격심사와 자본 확충이 마무리되는 내달 18일 이후 그동안 중단됐던 신규대출을 정상화한다. 동시에 아담대와 대주주 BC카드와의 시너지를 통해 재도약에 나선다. 케이뱅크는 후발주자인 카카오펀드와 달리 강력한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다. 영업 정상화에 나서도 카뱅처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 아직 인터넷은행에서 시도한 적이 없는 아담대 상품을 앞세워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오르겠다는 각오다. 케이뱅크가 아담대를 신규 상품으로 선정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기 때문이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시세 산정이 쉽지 않고 보증서가 까다롭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상화 이후에 아담대 상품을 첫 출시 상품으로 준비 중이다. 빌라나 다세대주택과 달리 아담대는 아파트라는 안정적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서류도 간소화할 수 있다"며 "인터넷은행 최초인 만큼 관련 상품 출시가 케뱅 재도약을 가능할 정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상품 준비는 이미 마무리 단

벼랑 끝 기사회생

내달까지 대주주 심사·유증 완료
신규대출 재개 등 공격경영 시동

재도약 히든카드의 신상품

업계 첫 아파트 담보대출 준비
시중銀보다 저금리·서류 간소화
"대출 갈아타기 수요 잇따를 듯"

'최대주주' BC카드와 시너지

생체인증 등 결제 플랫폼 고도화
금융-기술 접목 혁신성장 물꼬

계다. 다만 최근 부동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상품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에 한창"이라며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낮췄고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꽤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문환 회장 '고객발 혁신' 주문, BC카드와 증장기 협업 모색 = 올해 3월 취임한 이문환 신임 행장에게 거는 기대도 크다. 이 신임 행장은 2018년부터 비씨카드를 이끌며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반의 혁신 성장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89년 KT에 입사한 이 행장은 신사업 개발 담당, 경영기획 부부장, 기업사업 부부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IT에 능통한 데다 금융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융복합 사업에 적합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취임 직후 모든 상품·서비스 개발의 출발점은 고객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케이뱅크는 증장기적으로 BC카드와의

연도	월	내용
2017	4월	국내 제1호 인터넷은행 출범
	3월	KT, 대주주 신청했으나 공정법 위반으로 심사 중단
	4월	-KT, 5900억 원 규모 증자 불발, 무기한 연기 -직접인K 신용대출 등 일부 대출 판매 중단
2019	6월	가계신용대출 등 판매 중단
	12월	소액대출 판매 중단
2020	2월	예적금담보대출 외 모든 대출 영업중단 사실상 개정취업 상태
	2월 26일	인뱅법 개정안 심사 3월로 연기
	3월 4일	국회 법사위 인뱅법 개정안 통과
	4월 5일	-국회 본회의 인뱅법 개정안 부결 -KT를 통한 유증 불발 → 자회사 통한 우회증자로 선회
	4월 7일	케이뱅크 6000억 원 유상증자 결의
	4월 14일	BC카드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하고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하기로 결의
	5월 8일	BC카드 금융당국에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 신청
	6월 18일	-케이뱅크 6000억 원 규모 유증, BC카드 유증에 참여 지분 34% 확보 -신규 대출 재가동 영업 정상화, '아담대' 상품 출시, BC카드와 협업 모색

협업도 모색한다. BC카드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을 강조하고 있다. QR결제와 모바일 결제 플랫폼 개발을 고도화하고 있다. BC카드는 올 초 GS25 율지스마트점 '무인편의점'에 자사 QR코드 기반 자동결제 기술 탑재를 완료했다. 또 모바일 플랫폼 '페이북'을 통해 안면·목소리 등을 이용한 생체인증, QR결제 등으로 확장 중이다. BC카드가 금융과 테크(기술)를 접목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증장기적으로 인

터넷뱅킹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했던 고객 신뢰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는 신규대출 취급만 중단됐고 예·적금이나 모바일 서비스, 방카슈랑스, 해외 송금 등 모든 서비스는 그대로 운영했다. ATM 수수료 무료, 체크카드 혜택도 끊김 없이 진행해 고객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BC카드 대주주적격성 심사 무난하게

통과 예상... 내달 18일 5949억 원 유증 때 최대주주로 = BC카드는 8일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르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가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무난하게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를 통과해 BC카드가 정식으로 대주주에 오르면 케이뱅크에 자금을 수혈, 신규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KT가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 수사선에 오르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자본 확충이 번번이 무산된 탓이다. 지난달 국회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KT가 직접 대주주에 오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지만 KT와 BC카드가 각각 지난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BC카드 주도의 증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BC카드는 케이뱅크가 다음달 18일을 유상증자일로 추진 중인 5949억 원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치열해지는 인터넷銀 경쟁

돌아오는 '케뱅'
달아나는 '카뱅'
달아오른 '토스'

-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차별화
- 1분기 만에 작년 총 순이익 넘어
- 내년 인터넷銀 출범 민반 준비

인터넷 전문은행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실적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카카오펀드에 이어 '말똥' 케이뱅크도 내달 본격적인 영업 재개에 들어간다. 첫 흑자를 기록한 토스는 연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내년 토스뱅크 본격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내달 유상증자 이후 정상영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새로 준비하는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케이뱅크는 신용평가 모형을 차별화한 고도화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을 출범 초기부터 갖고 있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문환 케이뱅크 행장은 "금융거래 정보와 통신정보를 섞은 빅데이터 정보를 실제 상용화한 곳은 케이뱅크뿐"이라며 "2년 넘게 고도화된 CSS를 통해 차별화를 꾀했고, 노하우도 쌓였다"고 자부했다. BC카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 대표는 "일반대출 신용상품, 일반가계 신용대출의 경우는 자영업자 생활자금 대출인데, 금융거래 정보에 BC카드 가맹점 정보를 엮어 차별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세

분화된 신용평가 모형을 운용할 수 있다"며 "그동안 쌓인 CSS 노하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펀드는 호실적을 기록하며 순항 중이다. 카카오펀드는 올 1분기 18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대비 181.3%나 증가한 호실적이다. 성장의 기세를 더 높여 올들어 3개월 동안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거둔 셈이다. 윤호영 카카오펀드 대표는 지난달 27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편리한 고객 경험과 유용한 혜택을 통해 선보이는 상품과 서비스마다 고객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인터넷은행 출범을 앞둔 토스는 민반의 준비에 나섰다. 출범 5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달성한 가운데 연내 2억 달러(약 2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업계는 토스가 은행업 진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토스뱅크 준비에 자금을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인 토스뱅크와 올해 출범 예정인 토스증권의 서비스 확대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투자 수수료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협력센터 1599-8245




코로나 재확산 공포에 하반기 실적도 '시계 제로'

산업계 '적자 쓰나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2분기 실적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재확산 우려가 하반기 경영 상황을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1분기 선방했던 반도체는 수요가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카메라 모듈 업황도 나빠졌다. 일부 노선 재개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던 항공사들 파산위험에 처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시장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최근 올해 반도체 시장이 4.2%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치를 5.5% 성장에서 2.5% 성장으로 낮춰 잡았다. 가트너는 올해 반도체 매출이 0.9% 역성장할 것으로



반도체 올 역성장 전망...D램 가격 1달 만에 최저치

스마트폰 분기 판매 6년 만에 가장 낮아...부품도 침체

항공 한국인 입국제한 강화 우려...“연내 회복 불투명”

전망했다.

D램 수요도 한풀 꺾였다. D램이스테인 지에 따르면 PC용 D램의 개당 현물가격은 최근 3.27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1달 만에 최저 수준이다. 현물가격이 하락하면

서 고정거래 가격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면서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도 전반적으로 약세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

해 1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억 7480만 대로 지난해보다 17% 급감했다고 분석했고,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1분기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한 2억9500만 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 스마트폰 판매가 3억 대를 밑돈 것은 6년 만에 처음이다.

스마트폰 시장 위축은 카메라 모듈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사업이 2분기에 적자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사업 매출이 전기 대비 49% 이상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할 것으로 추측했다. 신한금융투자는 “IT 세트 제조사들의 부품 재고 조정으로 2분기 카메라 모듈 공급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2분기 카메라 매출 감소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심스럽게 일부 국제선 운항 재개를 검토 중이던 항공업계 역시 코로나19 재확산 공포에 휩싸여 있다. 경영상황을 볼 때 운항재개가 또 미뤄지면 사실상 파산을 검토해야 할 정도다.

국내 8개 항공사 모두 1분기에 이어 2분기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되지만, 하반기에는 그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번 집단 감염에 따른 2차 영향으로 해외의 입국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6월부터 서서히 일부 국제선 재개를 검토 중이던 항공사들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내달 총 110개 국제선 노선 중 32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이달부터 일본 나리타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4월 국제선 여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2분기 적자 규모는 1분기의 2배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는 바닥을 칠 것으로 기대했다”면서 “하지만 이태원발 집단 감염 여파가 생각보다 클 경우 연말까지도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하유미 기자 jscs508@

LG, 상반기 사업보고회 수시 전략회의로 대체

구광모 회장 업무 실용 증시
하반기 사업보고회만 유지
경쟁력 강화·미래 전략 논의



동상 상반기 회의는 5월께, 하반기 회의는 10월께 열린다.

던 사업보고회를 하반기 한 차례만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회는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이 주재하는 계열사별 전략회의로

LG그룹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로 수시로 계열사들의 주요 전략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사업 보고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사업보고회는 예년처럼 10~11월 진행된다. 한 해 사업 성과와 내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고객 가치 제고와 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준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LG가 상반기 사업보고회를 수시 전략회의로 대체한 것은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구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업계는 해석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주재한 사업보고회에서도 임원들의 일방적 보고가 아닌 토론 형식으로 진행했다. 기존의 대강당에서 진행됐던 시무식도 올해 온라인으로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만 하더라도 다른 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LG 문화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하지만 구 회장 취임 이후 직원들

의 업무 자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LG그룹은 당분간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하는 한편 계열사별 포스트 코로나 계획을 논의해 나갈 전망이다. 구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직원 안전 사항 등에 관해 매일 확인하고 있다. 구 회장은 3월에 열린 열린 (주)LG 주주총회에서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어려움에도 기회가 있기에 LG는 슬기롭게 대처하며 위기 이후의 성장을 준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솔루션, 태양광 선전에 1분기 영업이익 62% 급등

태양광 영업이익률 사상 최고

한화솔루션이 올해 1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태양광 부분의 선전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조2484억 원, 영업이익 159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0.5%, 영업이익은 62% 각각 늘어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YNCC 적자 전환 등에 따른 지분법 손실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47% 감소한 640억 원을 기록했다.

케미칼 부문은 매출 8304억 원, 영업이익 559억 원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화학 제품 수요 감소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8%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 약세에 따른 원료 가격 하락으로 제품 스프레드(마진폭)가 확대되면서 4.1% 늘었다.

태양광 부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늘어난 9057억 원,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한 1009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1분기 태양광 영업이익률은 11.1%로, 2010년 한화가 태양광 사업에 진출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넘은 것도 2016

년 2분기 111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는 지난해 2분기 시작된 멀티에너지 모노 타입으로의 생산라인 전환이 지난해 말 사실상 마무리된 데다가 프리미엄 시장인 미국 시장 판매량이 늘어난 덕분이다. 첨단소재 부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내외 완성차 업체의 가동 중단 여파로 매출은 1905억 원, 영업손실은 57억 원을 기록했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2분기부터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의 여파가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양방향 도어 'LG 시그니처 와인셀러' 출시 LG전자는 왼쪽으로 도어를 열 수 있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LG SIGNATURE) 와인셀러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은 인테리어나 가구 배치 등에 따라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도어를 여는 와인셀러를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출하가 기준 740만 원. 사진제공 LG전자

포스코 '연 3조 물류비' 운영법인 연내 출범

계열사별 운송 계약 업무 통합
AI기반 물류플랫폼 성장 기대

포스코는 물류통합 운영법인 '포스코 GSP(가칭)'을 연내 출범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 GSP는 포스코 및 그룹사 운송물량의 통합계약과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물류 파트너사들의 스마트·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물류 효율과 시너지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철강원료 구매, 국내외 제품 판매와 관련된 각종 운송계약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관 등 계열사별로 물류 기능이 흩어져 있다”면서 “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그룹 물동량은 약 1억6000만 톤, 물류비는 약 3조 원 규모에 달했는데도 물류업무가 회사별·기능별로 분산돼 판매 및 조달의 지원 업무로만 운영되는 등 효율성, 전문성 제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포스코 GSP는 원료 및 제품의 수송계

획 수립, 운송 계약 등의 물류 서비스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기반의 물류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중소 협력사에 이전하고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물류 파트너사에도 접목해 스마트화를 함께 추진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포스코 물류 통합 법인이 설립되면 해운업, 운송업까지 진출해 사업영역을 침범하고 물류 생태계를 황폐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해운법에 따라 대량화주가 해상운송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해운업은 물론 운송업에 진출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삼성, 입사 시험 GSAT 온라인 진행

삼성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온라인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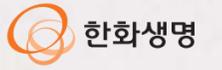
이에 따라 응시자는 집에서 PC를 활용해 온라인 GSAT 시험을 진행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인 PC 모니터를 촬영한다.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시험을 감독한다.

삼성은 온라인 GSAT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0, 31일 이틀 동안 4회로 나눠 분산 진행하며 회차별 문항은 다르게 출제할 예

정이다. 시험은 사전 준비 60분, 시험 60분 등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장시간 집중력 유지가 쉽지 않은 온라인 시험 특성을 고려해 문제 해결력, 논리적 사고력을 검증할 수 있는 수리영역과 추리영역 평가로 진행한다.

삼성은 응시자에게 유의사항과 휴대전화 거치대, 개인정보보호용 커버 등을 담은 키트를 우편 발송하고, 시험 약 1주일 전 예비소집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할 예정이다. 삼성은 내달 중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방식과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잘하고 싶다 자라고 싶다

두 가지 모두를 꿈꾼다면 한화생명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싶다면
누구보다 당당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당신의 시작은 달라야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지원이 함께 하는
한화생명에서 남다른 시작을 여십시오

한화생명에서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체계적인 성장지원

시스템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한 사람의 신인FP가 전문가로 거듭나기까지, 한화생명의 지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력한 활동지원 시스템

가망고객 발굴부터 계약 후 관리까지-다양한 시장확보 지원과 모바일 활동지원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탄탄한 보상체계

활동 초기 든든한 정착지원은 기본!
더 큰 성과에는 그에 맞는 실질적 대우를 약속합니다!

한화생명 FP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hanwhalife.com

본 광고는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것으로, 정규 또는 비정규 직원채용과는 무관합니다

美 ITC 'SK 배터리 판매금지' 의견...지역여론 '반대' 우세

ITC 조사국 "영업기밀 보호 위반
최소 5년 이상 제재해야" 강경

"車 산업 타격 신중한 결정 필요"
美 의원·관련 기업 당부 잇달아
배터리 소송 10월 초 최종 결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수입과 판매·유통을 5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조지아주 등 지역사회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내비쳤다.

12일 ITC에 따르면 OUII는 SK이노베이션에 최소 5년의 제한적 배제명령(LEO)과 금지명령(CDO)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했다. 제한적 배제명령이란 '통상법'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에 한해 수입을 배제하는

명령이다. 금지명령은 이미 수입된 침해 제품의 판매와 유통을 막는 것이다.

아울러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한 이후 미국 의회, 주 정부, 이해관계 기업 등에 이번 소송 결과가 미칠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의견이 갈렸다. 의견을 제출한 9명의 의원 중 셰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등 4명은 "미국에서 LG화학의 성공과 투자는 공정한 무역과 경쟁, 그리고 영업비밀 보호에 기반을 둔다"며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반면, 라마 알렉산더(Lamar Alexander) 등 5명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소비자, 경쟁적 경제 상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당부했다.

지방 정부에서는 조지아주와 잭슨 카운티, 커머시 등에서 "ITC의 결정은 잭슨 카운티와 조지아주, 그리고 미국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공익적 측면을 신중히 평가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모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과 연관 있는 지역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말 미국 조지

아주 잭슨 카운티 커머시에 연간 9.8기가와트시(GWh)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최근 두 번째 공장 건설을 결정하고 7억2700억 달러(약 8900억 원)를 출자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관련 기업 22곳도 의견을 냈다. 리오캠(LioChem) 등 20곳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제명령은 배터리 공장 하나를 문 닫는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이런 공익에 미치는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LG화학과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한 제너럴 모터스 등 2곳은 LG화학의 편에 섰다.

최근 ITC는 앞서 캐머런 엘리엇 행정판사(ALJ)가 내린 SK이노베이션의 초기 패소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10월 5일 최종 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최종 판결 전에 합의할 것이라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유통을 5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생산 모습.

제주항공 신임 대표에 김이배 부사장

이석주 사장, AK홀딩스 대표로
애경 지주사서 항공 '공조' 강화



김이배 부사장

대표이사 부사장 △ 박홍식 애경화학 대표이사 △ 애경유화 대표이사 부사장 △ 표경원 애경유화 전무가 애경화학 대표이사 전무 △김주담 애경화학 상무가 애경유화 CFO로 이동했다.

애경그룹이 지주회사인 AK홀딩스 사령탑에 이석주 사장을 선임하는 등 2020년 상반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애경그룹은 AK홀딩스를 비롯해 제주항공, 애경산업, 애경유화, 애경화학 등 5개 회사에 대한 상반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해 6월 1일자로 대표이사 5명과 애경유화 CFO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애경그룹은 5월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애경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을 중심으로 한 위기경영체제를 가동하기 위함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AK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이동한 것을 비롯해 △임재영 애경유화 대표이사가 애경산업

항공사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아시아나 출신의 항공 전문가인 김이배 부사장을 제주항공 대표이사로 깜짝 발탁했으며, 애경유화 임재영 대표를 애경산업 대표이사로 선임해 안정적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의 본격 확장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한, 제주항공 대표이사인 이석주 사장을 애경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임명하며 그룹과 제주항공간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현 항공사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항공의 사업혁신을 이룬다는 방침이다. 박미선 기자 only@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켈(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BELLEVILLE 1766.1535



'모닝 어반' 경차 첫 운전보조시스템

기아차가 2017년 출시된 3세대 모닝의 상품성 개선 모델 '모닝 어반'을 출시한다. 모닝 어반은 개성 넘치는 역동적인 디자인과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경차 최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15.7km/ℓ로 동급 최고 연비를 자랑한다. 판매 가격은 △스탠더드 1195만 원 △프레스티지 1350만 원 △시그니처 1480만 원이다. 기본 트림 기준 이전보다 가격이 약 230만 원 올랐다.

사진제공 기아차

LS전선, 660억 규모 美 미시간호 수증케이블 수주

LS전선은 미국에서 약 660억 원 규모의 해저 케이블 교체 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 중북부 미시간호에 1970년대 설치한 노후 해저 케이블을 2021년까지 교체, 미시간주의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는 사업이다. 미국은 설치한 지 오래되어 노후된 전력망이 많아 앞으로 교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내 해상풍력발전지의 개발

도 해저 케이블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2050년까지 해상풍력에 의한 발전량을 연간 86기가와트(GW) 규모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8000만 이상의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명호현 LS전선 대표는 "미국 해저 케이블 시장은 노후 케이블의 교체와 해상풍력 개발에 따른 신규 수요가 더해져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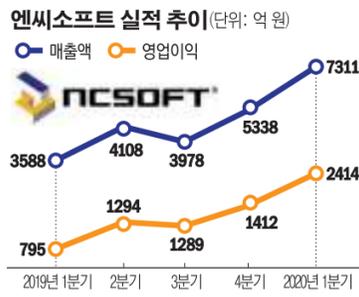
권태성 기자 tskwon@

엔씨소프트, 1분기 최대 매출... 올 '2조 클럽' 청신호

매출 104% 늘어난 7311억 ... 영업이익 204% 증가한 2414억 '리니지M' '리니지2M' 매출 5531억... 모바일 게임 실적 견인 글로벌 시장 공략 속도... 하반기 '블소2' 등 다양한 신작 출시

엔씨소프트가 1분기에만 분기 최대인 7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2조 클럽' 가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12일 엔씨소프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41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311억 원으로 104% 성장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954억 원으로 162% 늘었다. 1분기 실적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한국이 63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북미와 유럽이 190억 원, 일본 129억 원, 대만 118억 원으로 나타났다. 로열티 매출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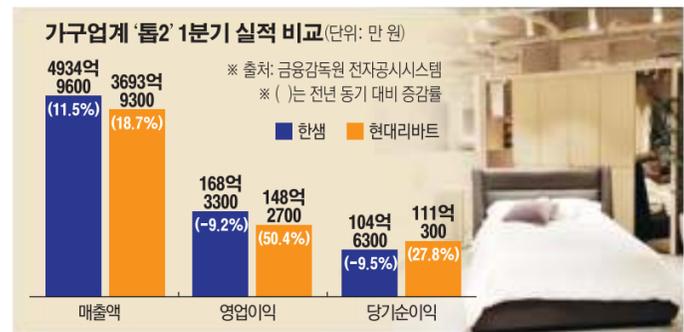
528억 원이다. 게임별로는 모바일 게임 매출이 5532억 원으로, 리니지M이 2120억 원, 리니지2M은 3411억 원을 각각 벌어들였다. 국내에서, 그리고 리니지M과 리니지2M이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에서 현재 매출 1위다. 지난해 12월 1일 구글 플레이 매출 1위를 달성한 이후 6개월째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 역시 장기 흥행 모드에 돌입한 지 오래다. 윤재수 엔씨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이날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리니지2M은 연말까지 안정적 매출 곡선을 보일 것"이라며 "2분기 말 3주년 기념 프로모션이 예정돼 있어 견실한 성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도 밝다. 먼저 글로벌화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글로벌 시장 공략을 올해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국내에만 한정된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시장을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시기와 진출 국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리니지2M을 세계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글로벌화에 더불어 신작도 선을 보인다. 현재 엔씨소프트 내부에서는 블레이드&소울2, 아이온2, 프로젝트TL 등 다양한 신작을 개발하고 있다. 신작 게임들은 시장에 내보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개발에 매진하며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올해 말 블레이드&소울2를 우선 선보이며 내년 프로젝트TL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어진다면 엔씨소프트의 연매출 2조 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초부터 2조 클럽 진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졌지만, 막상 연매출 1조7012억 원을 기록하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냈다. 지난해에는 이렇다 할 신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11월 출시한 리니지2M의 성과도 온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2조 클럽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1분기부터 70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연매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진구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소폭 감소하고 신작 효과 부족 및 기존 게임 매출이 감소했다"며 "올해 매출액은 리니지2M의 국내 실적 운기 반영과 해외시장 진출 성과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B2B'에 웃고 '코로나'에 울고 가구업계 '톱2' 실적 희비

가구업계 '톱2'인 한샘과 현대리바트의 1분기 실적에서 희비가 갈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현대리바트는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한샘은 일회성 비용이 늘면서 실적이 소폭 감소하면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리바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48억2700만 원, 매출액은 3693억9300만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4%, 18.7%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27.8% 늘어난 111억300만 원을 기록했다.

사업 호조 등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1위' 한샘은 지난 분기에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한샘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연결 기준 168억3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934억9600만 원으로 11.5%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9.5% 줄어든 104억6300만 원을 기록했다. B2C 부문에서 약세였던 영향이 컸다. B2C 부문에서 2988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전년 동기 대비 107억 원(3.5%) 감소한 수준이었다. 인테

현대리바트, B2B 성장세 힘입어 영업이익 50.4% 경증
한샘, 코로나 대응 일회성 비용 늘어 영업이익 9.2% ↓

부문별로 보면 기업 간 거래(B2B) 부문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올 1분기 자재, 법인, 건설 등 B2B 사업 매출액은 13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6% 늘었다. 가구 사업도 호조였다. 가정용·주방용 가구 등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가구가 같은 기간 9.8% 늘어난 834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다. 빌트인, 사무용 가구 등 B2B 가구도 9.7% 증가한 1092억 원을 기록했다. 기존 수주 건으로 인해 빌트인 가구 매출액이 늘었고, 직영점을 늘리면서 인테리어 가구가 성장한 것도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코로나19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구매 수요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대리바트 관계자는 1분기 실적에 대해 "주방가구, 온라인 등 B2C 가구

리아 가구 매출이 8.8% 줄어든 영향이다. 반면 B2B 부문은 소폭 성장했다. 매출액 1172억 원을 기록, 같은 기간 1.9% 매출을 늘렸다. 또, 매출액 신장에는 신규 인수한 넥서스 법인과 인테리아 시공사인 서비스윈의 매출인식 효과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샘 측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일회성 비용이 25억 원가량 발생하면서 영업손실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영업이익 둔화는 코로나19 대응 비용 지출에 따른 것"이라며 "회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 공헌 기부 및 대리점 임대료 감면, 방역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실적이 갈린 셈이다. 이다원 기자 leedw@

유료방송 가입자 3360만명... KT, 737만명 1위

전년 대비 57만명 늘어
IPTV 점유율 50% 돌파

지난해 유료방송 가입자가 336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해 상반기보다 57만 명 증가한 수치로, 이통3사가 주도하는 IPTV 증가세가 뚜렷하다. IPTV와 종합유선방송(SO)의 격차는 365만 명으로, KT가 단일 업체 기준 737만 명(21.96%)으로 1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방송법 제8조, IPTV법 제13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의 20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조사·검증 및 시장점유율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360만1484명(6개월 평균)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상반기 대비 57만 명

어남 수치다. 사업자별로 KT가 737만 7514명(점유율 21.96%)로 1위에 올랐으며, SK브로드밴드 509만864명(15.15%), LG유플러스 436만4601명(12.99%), LG헬로비전 400만4190명(11.92%), KT스카이라이프 321만975명(9.56%)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계열사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1059만 명(2019년 상반기 1034만 명),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전 CJ헬로)을 합산한 가입자 수는 837만 명으로, 유료방송 시장에서 각각 31.52%와 24.9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다. 2019년 하반기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의 합산규제 일몰 전후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사업자별 증가폭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SO, 위성방송, IPTV)는 특수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

의 3분의 1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일몰은 2018년 6월 27일까지였다. 2019년 하반기 가입자는 4% 증가했다. 2015년 하반기 이후 매반기별 80만 명 이상 증가하던 가입자 수는 2018년 상반기부터 증가폭이 감소해 50만 명대를 유지했다. 매체별 6개월간 평균 가입자 수는 IPTV 1683만2979명(50.10%), SO 1355만7530명(40.35%), 위성방송 321만975명(9.56%) 순으로 집계돼 IPTV 시장점유율이 50%를 돌파했다. 월별 가입자 수 동향을 보면 2017년 11월부터 IPTV 가입자 수가 SO 가입자 수를 앞선 이후 IPTV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SO는 감소함에 따라 IPTV와 SO 간 가입자 수 격차는 2019년 12월 말 기준 약 365만 명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훈 기자 yes@

한일시멘트, 고기능 이동식 사일로 공급 확대

200여 개에 센서·자동 공급장치 설치... "모르타르 시장 선도"

한일시멘트 레미탈사업부가 증간소음 저감 등 고기능성 바닥공사를 위한 첨단 고기능 이동식 사일로(Silo) 200여 개를 확보, 건설현장에 확대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식 사일로는 건설현장 내부바닥 및 옥상 공사용 드라이 모르타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설비다. 한일시멘트는 현재 300여 개의 이동식 사일로를 보유, 국내 최대 규모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수작업에 의존하던 200여 개의 이동식 사일로에 센서와 자동 공급장치를 설치, 정량 계량 장치 시스템을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드라이 모르타르 양과 혼합에 필요한 공급 수를 제품 종류에 맞게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료를 방지하고, 혼합비율을 균일하게 맞춰 제품 본연의 특징을 살렸다. 또한, 건설 시공 시 가장 중요한 균일한 품질 유지 확보에도 탁월하다. 따라서 고기능성 제품에 용이한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일시멘트는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요



구하는 안정적인 품질 확보를 위해 제품뿐만 아니라 시공을 위한 설비 개발에도 지속해서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며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를 통해 건설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무게는 줄이고, 품질은 개선한 '25kg 프리미엄 미장용 레미탈 FS150'과 기존 타일 시멘트 대비 약 80%의 분진을 줄일 수 있는 '타일접착용 모르타르 폴리픽스 1000/2000'을 국내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SK(주) C&C-제약바이오협 인공지능 신약 개발 MOU

SK(주) C&C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개방형 인공지능 신약개발 인프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술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양 기관은 SK(주) C&C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인공지능 전문 IT기업과 제약사의 '인공지능 신약 개발 공동 프로젝트'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AI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기업 지원과 전문가 양성 등 국내 제약바이오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신약개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센터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신약개발 개방형 인프라 구축 △신약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확보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관련 서비스 공유 △제약사 대상 교육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상호 협력 방안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동준 SK(주) C&C 헬스케어 그룹장은 "협회와 협력해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전문 기업에 맞는 최적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및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새 옷 입는 영등포 롯데... 신세계와 서남권 '왕좌의 게임'

유아동 전문관 확대 오픈 이어 시니어 편집숍 등 순차 리뉴얼 연말 문 여는 현대백화점 여의도점도 가세 '불꽃 경쟁' 예고 영등포 신흥 주거지 개발 호재... 서울 3도심 상권 부활 기대

영등포 '맹주' 타이틀을 놓고 롯데와 신세계가 격돌한다. 연초 신세계백화점이 1층을 식품관으로 꾸미고, 건물 한 동 전체를 리빙관으로 꾸미며 파격적인 변신에 나선 데 이어 롯데백화점도 10년 만에 리뉴얼로 맞불을 놔다.

영등포는 업계 1~3위 백화점이 근거리에서 경쟁하는 유일한 상권으로 롯데와 신세계의 연매출 차이는 110여억 원에 불과하다. 신세계로서는 만년 2인자 자리에서 서남권 맹주로 올라설 기회이자 지난해 인천점을 롯데에 빼앗긴 수모를 갚을 기회다. 롯데로서는 갓길 수 없는 타이틀 수성에 나서며 팽팽한 신경전이 한창이다.

여기에 이르면 올 연말 현대백화점이 서울 최대 규모의 여의도점을 열 예정이어서

영등포 상권을 둘러싼 백화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쇼핑은 6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8층의 아동·유아 전문관 일부를 새단장해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기존 7층에 있던 아동·유아 매장을 8층으로 이동시키며 면적을 4100㎡(1250여 평) 규모로 늘렸고, 프리미엄 키즈 셀렉스 '리틀그라운드', 유아교육 전문 브랜드인 '마이리틀타이거' 등을 통해 상품 구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로봇 브랜드인 '휴머노이드'를 업계 최초로 선보이고, 체험형 키즈카페인 '닥터벨런스'와 '상상스캐치'를 각각 7월 초, 6월 중순 선보이기로 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과 잡화로 구성됐던 1층을 식품과 패션 등 소품들과 같은 형태로



꾸미고, 50대 이상 시니어 고객을 위해 한층 전체를 편집숍 형태로 꾸미는 등 순차적으로 리뉴얼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영등포점은 롯데쇼핑의 백화점 가운데 매출 4위에 오른 주요 점포이지만 지난해 영등포역사 운영권이 입찰에 부쳐지는 등 곡절을 겪으면서 공격적인 운영이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해 롯데쇼핑이 최소 10년 운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재단장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영등포점은 매출 상위의 놓칠 수 없는 점포"라면서 "색다른 형태로 리모델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말부터 10년 만의 리뉴얼을 통해 일찌감치 서부 상권 왕좌를 노리고 있다. 이미 2개의 건물 중 한 동 전체를 리빙관으로 꾸미는 파격 변신을 시도했고, 패션관 2층에는 캐주얼 위주의 브랜드 대신 기존 상권에서 볼 수 없던 엠포리아아르마니와 에르노, 알렉산더왕, 막스마라 등 해외패션 전문관도 선보였다.

백화점의 얼골인 리빙관 1층에는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쌓아두는 '벌크 진열' 식품관을 열어 해외 명품 브랜드나 화장품 등을 입점시키는 고정관념을 깬다. 아울러

식품관 베이커리 메나주리에서는 업계 최초로 빵 구독 서비스를 출시해 인근 직장인들을 겨냥했다.

백화점들이 영등포점에 공들이는 이유는 서남권 1인자라는 자존심 외에도 서울 3도심으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상권이기 때문이다. 영등포역은 2024년 신안산선 개통을 앞두고 있고, 이듬해 문래동에는 제2 세종문화회관이 생긴다. 대선제분은 서울 민간주도형 도시재생 '1호 사업'으로 복합문화 공간으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유동인구 유입 기대감이 높다.

인근에 신길뉴타운과 영등포뉴타운, 쪽방촌 행복주택 등 신흥 주거지가 개발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내 영등포구 일대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7279가구다. 이는 올해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입주 가구(4만1913가구)의 17.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내년까지 입주 가구 수는 무려 2만 가구에 육박한다. 유아동을 동반한 젊은 가족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남주현 기자 jooh@



1억3000만 원대 '명품 시계' 현대백화점이 무역센터점 2층에 있는 스위스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피아제(PIAGET)'에서 '리얼라이트 갈라 워치' 라인의 신제품 '갈라 사피어 그라데이션 브레이슬릿(1억3000만 원대)'을 전시·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4.01캐럿 상당의 블루 사피어와 1.46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로 시계 테두리(베젤)에 배치했고, 시곗줄(브레이슬릿)은 18K 화이트골드로 화려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보릿고개 넘는 패션가 '애슬레저'로 돌파구

휴트족 늘며 올 시장 3兆 전망... 신세계인터 '자주' 전문 의류 출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패션업계가 부진의 돌파구로 '애슬레저'를 택했다.

올 들어 애슬레저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한 브랜드가 적지 않고, 캐주얼 운동복 라인을 이미 론칭했던 브랜드는 기존 라인을 확대해 애슬레저라는 이름을 붙여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애슬레저는 코로나19로 부진에 빠진 패션업계에서 유일하게 매출 신장을 기록 중인 장르다.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0% 신장했고, 패션기업 LF도 코로나19 이후 애슬레저만큼은 유일하게 성장했다.

존에 판매하던 원마일웨어에 애슬레저 라인을 새롭게 추가했다.

자주의 애슬레저 라인(사진)은 운동뿐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입을 수 있는 액티브 캐주얼웨어를 콘셉트로 한다. 주요 제품인 레깅스와 스포츠 바라는 사용자의 운동 강도에 따라 적합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기능과 소재를 세분화했다.

올해 새로 출시된 애슬레저 브랜드는 기본 좋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는 이달 '제니움 애슬레틱 라인'을 새롭게 선보였다. 아이더 측 관계자는 "애슬레저 라인 출시 후 소비자 반응이 좋다. 특히 스트레치와 통풍성이 뛰어난 소재가 사용된 '아티 트레이닝 세트'가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후 워라벨 문화가 확산되며 애슬레저 열풍이 불더니 코로나19 사태 이후 휴트레이닝족 증가로 집 근처에서 활동하는 원마일 패션이 인기를 끌면서 애슬레저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애슬레저 시장은 2009년 5000억 원에서 2016년 1조5000억 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시장 규모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패션업체들이 앞다퉈 애슬레저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자주(JAJU)는 전문 애슬레저 의류를 처음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주는 기

스포츠 브랜드 휠라도 기존 여성 피트니스 라인 '휠라 핏'의 소재를 강화해 여성 특화 애슬레저 라인인 '휠라 스튜디오'를 새롭게 론칭했고, 속옷 전문 기업으로 출발했던 라이프스타일 기업 그리티는 겉옷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애슬레저 브랜드를 새 사업 아이템으로 선택했다. 그리티는 지난달 프랑스 프리미엄 브랜드 '위프'를 국내 론칭하며 국내 애슬레저 시장에 진출했다.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도 애슬레저 전용 브랜드 '루시스(Lusis)'를 공식 론칭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한섬 시스템·BTS 협업 '캡슐 컬렉션'

한섬의 남녀 캐주얼 브랜드 시스템·시스템웜트가 방탄소년단(BTS)과 손잡았다.

현대백화점그룹 패션 전문기업 한섬은 시스템·시스템웜트가 방탄소년단과 협업한 1차 BTS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BTS 캡슐 컬렉션은 방탄소년단의 대표곡 중 하나인 '피 땀 눈물'을 모티브로 티셔츠·셔츠·원피스·후드 티셔츠 등 의류 아이템과 모자·양말 등 액세서리 아이템 등 총 25개 모델로 구성된다.

대표곡 '피 땀 눈물' 모티브



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캡슐 컬렉션은 'BTS | SYSTEM' 특별 사이트와 방탄소년단의 공식 상품 판매처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숍'에서 사전 구매할 수 있다. 사전 구매 예약 고객에게는 '피 땀 눈물(Blood, Sweat, Tears)' 영문명과 '시스템' 로고가 프린팅된 키홀더를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오프라인 공식 발매일은 27일이며,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판교점 등 전국 32개 시스템·시스템웜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섬은 스토리 티저 영상(Login BTS | SYSTEM)을 시스템 인스타그램과 시스템 공식 트위터, 더한섬닷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섬 관계자는 "시스템·시스템웜트와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는 국내외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성 콘텐츠를 통해 K패션의 우수성을 글로벌 패션 시장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이번 1차 캡슐 컬렉션에 선보이게 되는 제품들은 '피 땀 눈물' 뮤직 비디오에 나오는 그래픽 디테일과 사물(오브제) 등을 시스템·시스템웜트만의 디자인과 색상을 활용해 의상에 적용한 게 특징이다.

한섬 관계자는 "시스템·시스템웜트와 방탄소년단은 그동안 각기 다른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스타일과 문화를 창조해 왔다"며 "이번 협업 프로젝트에서는 '유일함과 멋'이라는 테마로 두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의상에 멋스럽게 녹

'베트남 국민빵' 된 오리온 양산빵 '쎬봉'

출시 1년 만에 3500만 개 팔려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지난해 5월 선보인 양산빵 '쎬봉'(C'est Bon)이 베트남 현지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오리온은 쎬봉이 아침 대용식 시장 공략에 성공해 날개 기준 누적판매량 3500만 개를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베트남 국민 3명 중 1명은 이 제품을 맛본 셈이다.

오리온은 간편하고 건강한 아침 대용식을 찾는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조식을 빵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착안해 1년간 맛과 영양을 만족시키는



양산빵 연구 개발에 힘썼다.

프랑스어로 '맛있다'는 뜻의 쎬봉은, 베트남인들이 즐겨먹는 '반미 짜봉'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쎬봉은 전에 없던 맛과 식감으로 출시되자마자 현지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롯데샌 캄프 쿠키 아이스바 변신



1978년 출시된 최장수 비스킷인 롯데샌드의 화이트크림캄프 맛이 롯데푸드의 고급 아이스바로 나왔다.

롯데푸드는 롯데샌드를 아이스바로 만든 '롯데샌 캄프 아이스바'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롯데샌 캄프 쿠키를 아이스크림에 붙이고 파란색 패키지로 디자인도 그대로 적용했다.

캄프 쿠키와 쿠키분태(가루),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조화를 이룬다. 쿠키가 아이스크림과 함께 숙성돼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다. 초콜릿 맛인 캄프 쿠키가 통으로 붙어 있어 쿠키샌드 아이스크림 식감과 바 아이스크림의 간편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롯데샌드는 1978년 출시된 롯데제과의 최장수 비스킷인 롯데샌드가 지난해 이름을 바꿔 재탄생한 브랜드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통쿠키가 그대로 붙어 있는 아이스바로 보는 재미와 먹는 식감을 모두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여자의 선택!

TS 쌤♥



TS모델 김연아

김연아와 TS가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TS 트릴리온[®] Trillion

〈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ETF·ETN 거래대금 ‘반토막’…‘빙하기’ 오나

변동성 장세에 유입된 투기성자금
 당국 규제·증시 반등에 한풀 꺾여
 ETF 17兆·ETN 1.3兆로 급감

마이너스 유가로 몸살을 앓은 ETP(상장지수상품) 거래규모가 반토막이 났다. 변동성 완화와 당국 규제로 주식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투기성 자금 유입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전날 종가 기준) ETF(상장지수펀드)와 ETN(상장지수증권) 거래대금은 각각 16조 9459억 원, 1조2822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29조5527억 원, 2조 8033억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증시 반등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쏠리

ETF 수익률 상위 종목

종목명	등락률
KODEX WTI원유선물(H)	31.46%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13.91%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13.55%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13.5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3.53%

ETN 수익률 상위 종목

종목명	등락률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58.84%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41.94%
신한 WTI원유 선물	27.8%
미래에셋 원유선물혼합	18.79%
대신 WTI원유 선물	17.6%

※ 5월 4~11일 기준 ※ 출처: 한국거래소

던 투기성 자금 유입도 감소했다.

ETP 대표 상품인 ETF와 ETN은 모두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할 수 있다. 특히 특정지수나 자산 등락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발행주체가 각각 자산운용사(ETF)와 증권사(ETN)로 다르고 만기 및 신용위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이 차이다.

공원배 KB증권 연구원은 “투자 수단으로는 원유 선물 레버리지 ETN보다 괴리

율이 양호한 ETF를 추천한다”며 “유가의 단기 급반등이 아닌 중장기 점진적 상승을 가정하고 원유 가격이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다면 원유와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거래규모 감소에도 원유 상품의 경우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수 금액은 전월 대비 52.09% 증가한 반면 ETN에서는 67.65% 급감했다. 괴리율 폭등으로 일부 종목 거래가 정지되고 손실 위험이 커

지면서 ETN으로 향하던 자금이 ETF로 흘러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ETF의 경우 지난달 원유 관련 종목이 상위권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이달 들어 코스닥 관련주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 ‘KODEX WTI원유 선물’(31.46%), ‘KBSTAR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13.91%), ‘HANARO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13.54%),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13.54%),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13.53%), ‘KOSEF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13.29%) 등이 높은 수익을 거뒀다.

반면 ‘미래에셋 레버리지 원유선물혼합 ETN(H)’(59.84%), ‘신한 레버리지 WTI원유 선물 ETN(H)’(41.94%), ‘신한 WTI원유 선물 ETN(H)’(27.8%), ‘미

래에셋 원유선물혼합 ETN(H)’(18.79%), ‘대신 WTI원유 선물 ETN(H)’(17.6%), ‘미래에셋 원자재 선물 ETN(H)’(10.23%) 등이 ETN 시장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거래 규모 감소 현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ETP 상품에 대한 기본예탁금 설정, 투자자 사전교육, 액면병합 등의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11년에도 ELW(주식워런트증권) 개인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으면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뽑아들었다”며 “이후 시장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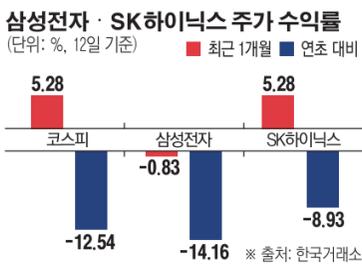
윤기쁨 기자 modest12@

“삼성전자 믿고 샀는데”… 동학개미 ‘한숨’

개인투자자 9兆 넘게 순매수
 코스피 5.3% 오를 동안 0.8% ↓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5.3% ↑

올해 들어 개인투자자가 9조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 주가는 한 달째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대형주에 약자인 외국인 매도세가 여전한 가운데 기관은 SK하이닉스로 눈을 돌려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에 서버 증설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기대감이 커지면서 휴대폰·가전까지 챙겨야 하는 삼성전자보다 반도체 하나에 집중하는 SK하이닉스가 투자 우선순위에 올라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03% 내린 4만7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42% 오른 8만5700원에 마감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 수익률(-14.16%)은 코스피 평균(-12.54%)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달간 코스피가 5.28% 반등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0.83% 하락한 영향이 컸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올해 들어 8.93% 하락했지만 최근 한 달간은 5.28% 상승하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를 믿고 매수 행렬을 이어간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은 기대 이하 성적에 가슴을 치고 있다. 올해 들어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9조3185억 원어

치 순매수하며 외국인이 내다 판 7조3134억 원어치 물량을 소화했다.

하지만 기관마저 삼성전자를 외면하면서 주가는 제자리걸음이다. 기관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대신 2위인 SK하이닉스를 매수했다. 올 들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주식은 삼성전자(2조 3189억 원)인 반면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은 SK하이닉스(3807억 원)다.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의 실적 기대치는 높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는 낮춘 점이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6조2476억 원으로 3개월 전 추정(8조6116억 원)보다 27.45% 낮아졌다. 반면 SK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1조5410억 원으로 3개월 전 추정(1조2350억 원)보다 24.78% 높아졌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증시 회복에도 힘 못쓰는 은행株

기준금리 인하 실적악화로 이어져
 KB·우리금융지주 30% 이상 하락

코로나19로 급락했던 국내 증시가 거의 회복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유독 은행주들만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반짝 반등하는 듯했지만, 다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주 반등 시기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코스피 은행업 지수는 155.82로 연초(245.61)와 비교해 36% 이상 급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2201.21에서 1935.4로 12%가량 하락한 것과 비교해 낙폭이 세 배에 달한다.

실제로 4대 은행주로 꼽히는 금융지주 종목들의 주가 하락폭도 적지 않다. KB금융이 올해 들어 전날까지 32.52% 하락했고 우리금융지주도 30.94% 주가가 내렸으며 신한지주(31.83%), 하나금융지주(19.91%) 등도 시장 평균치보다 많은 하

락폭을 기록했다. 은행주가 단기간에 이처럼 하락했던 적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가 유일하다. 리먼 사태 발생 이후 약 석 달간 은행주는 37%가량 하락해 코스피 하락폭인 21%를 2배 가까이 웃돌았다.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난 해 말 두 번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25bp)한 데 이어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기준금리를 50bp 추가 인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은행의 안정적인 실적원 중 하나인 예대마진의 하락으로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사태 등이 겹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도 한몫 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은행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박영사
신간도서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박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www.pybook.co.kr **박영사**

KR모터스, 턴어라운드 기대감

감자·증자로 관리종목 지정 문제 해소... 1분기 흑자 달성

자본감소와 유상증자로 관리종목 지정 문제를 해소한 KR모터스(옛 S&T모터스)가 올해를 턴어라운드 원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도 올해 1분기 흑자를 달성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KR모터스는 1978년 효성기계공업으로 설립돼 대림자동차공업과 함께 국내 이륜차 시장을 양분해왔다. 이후 2003년 효성그룹에서 분리됐으며 2007년 3월 S&T그룹에 편입됐다. 2014년 3월 코라오그룹(현 LVMC그룹) 피인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

2012년을 마지막으로 적자 수렁에 빠진 KR모터스는 LVMC그룹 편입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됐다. 국내 이륜차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해외 유명 브랜드의 하이엔드 제품 공세와 저가의 중국산 수입 확대에 회사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졌다.

기업 외형이 줄면서 수익성 부진도 이어졌다. 특히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 공장 가동 중단과 2018년 EURO4 환경규제의 영향 등으로 2017~2018년 매출이 급감해 수익성은 더욱 악화했다. KR모터스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9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외부차입

KR모터스 연결기준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억 원, %)

	2017년	2018년	2019년
매출	417	366	1,326
영업이익	-260	-163	-247
순이익	-315	-244	-410
부채비율	139.8	121.6	309.2
유동비율	96.7	123.1	61.0

에 따른 이자비용과 자산손상차손 등이 더해져 5년간 손실은 1236억 원에 달한다.

거액의 손실은 KR모터스의 자본을 잠식하며 재무 안정성을 뒤흔들었다. 이에 KR모터스는 2017년 말 보통주 1.5~2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하는 한편 2018년 말 361억 원의 유상증자도 단행했다. 하지만 작년에도 200억 원대 영업손실에 400억 원을 훌쩍 넘는 손실이 발생, 81.3% 자본이 잠식돼 관리종목 지정이 우려됐다.

다만 회사는 발 빠르게 올해 초 보통주 4주를 1주로 병합하는 자본감소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자본잠식률을 21.7%로 완화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26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성사시켜 재무안정성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호 기자 spdran@

단기물 감소에 유동비율 2배 '쑥'

상장사 재무 분석

마니커에프앤지

코스닥 상장사 마니커에프앤지의 유동성이 단기물 감소 속에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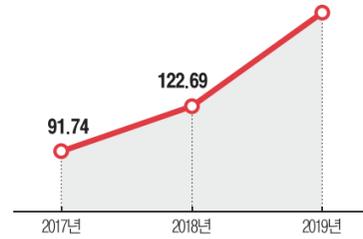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마니커에프앤지의 지난해 유동비율은 187.10%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보면 91.74%, 122.69%, 187.10%로 2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유동자산은 231억 원에서 302억 원으로 늘었고 유동부채는 252억 원에서 162억 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5억 원이 채 되지 않았던 현금및현금성자산이 지난해 97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유동자산 증가에 한몫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양호하면서 회사에 유입된 현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부채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해 오던 매입채무가 153억 원에서 116억 원으로 감소한 것도 컸다.

또한 적잖은 부담을 주던 유동성 장기차

마니커에프앤지 유동비율
(단위: %)



장단기 차입금 3년간 대폭 줄여 현금성자산 작년 97억으로 급증

입금이 최근 3년간 47억 원에서 13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단기차입금 역시 50억 원 수준에서 24억 원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본총액은 상장을 통해 자본잉여금이 급증하면서 196억 원에서 367억 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152.53%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59.46%까지 떨어지며 부채 부담을 줄였다.

마니커에프앤지는 2004년 마니커로부

터 분사한 곳으로 지난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육가공제품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 팜스토리 가 지분 74.2%로 최대주주다.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99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2년 연속 1000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44억 원을 기록, 전년 대비 29.65% 감소했다.

회사는 유동성 개선과 함께 기존 B2B 사업에서 B2C로까지 판매로를 확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 속에도 1분기 실적은 선방했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찬술SK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은 코로나 사태로 대형마트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채널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과 유사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에어프라이어 전용 간편식 브랜드를 론칭했으며 7월 삼계탕 제품이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B2C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고대영 기자 koda0@

한프 '한 지봉 두 대표' 경영권 분쟁에 주총 앞두고 소액주주 표심 잡기 경쟁

코스닥 상장사 한프가 '한 지봉 두 대표' 체제로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게 됐다. 법원에서 소액주주 측과 기존 경영진 측 대표를 1명씩 공동 선임했기 때문이다. 이번 달 말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추이가 주목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한프는 김선우 대표이사 체제에서 진정·정재훈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소액주주 측(진정)과 기존 경영진(정재훈)이 제시한 인물이 한 명씩 선정됐다. 진 대표는 과거 회계 관련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현재 한프 최대주주인 에스엘이노베이션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이는 애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소액주주 측의 임시이사 선임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지정했던 변호사 출신 김선우 대표가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한프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공동 대표 체제에서 26일 정기주주총회를 치르게 됐다. 지난해 말부터 소액주주들

및 투자사 프리미스IB 등과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사 선임과 관련한 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소액주주 측은 경영진이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영진 교체 를 요구하고 있다. 소액주주를 대표해 경영권 분쟁 선봉에 나선 프리미스IB는 김형남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이 여러 사업에 실패하면서 큰 손실을 회사에 안겼음에도 수십억 원 성과급을 받아가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소액주주 측은 경영권 분쟁이 가시화 하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해 지분 매집을 막는 와중, 손자회사인 제주컨트리클럽부(이하 제주CC) 자금 21억 원을 전용해 한프 지분(8%)을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양측 모두 이번 주총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다. 현재 에스엘이노베이션스의 특별관계자 지분은 25.13%, 프리미스IB의 특별관계자 지분비율은 9.46% 수준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순 없을까?”

굿네이버스는 오늘도 고민합니다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행복한 세상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내일을 위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아이들 편에 서주세요

아이들 편에서 놀이를 외칩다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는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

bithumb 빚셈 빗셈 지수 (2020년 5월 12일 17:00, KST)

www.bithumb.com

종류	종류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	6개월 대비 (%)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캐시	284,700	4,800	(1.7%)▲	8.3%
	리플	237	-1	(0.4%)▼	8.3%
	라이트코인	51,000	600	(1.2%)▲	8.3%
	대시	86,500	400	(0.5%)▲	8.3%
이더리움 가격	모네로	72,950	1,900	(2.7%)▲	26.2%
	비트코인골드	10,630	170	(1.6%)▲	26.2%
	이더리움 클래식	7,340	-40	(0.5%)▼	26.2%
	퀀텀	1,747	13	(0.7%)▲	26.2%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84㎡ A〉

서울 누르니 인천 치솟아... 청약 경쟁률 2만8000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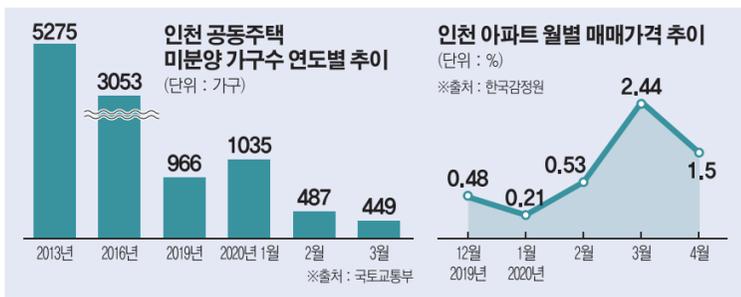
풍선효과로 미분양 무덤 탈출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무순위 청약 5만8763명 몰려
 전매 금지 8월부터 열기 꺾일듯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천에서 청약시장은 그야말로 광풍(狂風)이다.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에 한동안 주택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인천은 서울 주택시장을 향한 칼날 규제와 풍선효과와 교통망 호재에 힘입어 청약 경쟁이 날로 뜨거워져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붙은 청약시장 열기가 당분간 지속되다가 수도권 분양권 전매가 본격 봉쇄되는 8월을 기점으로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오늘 8월 이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 기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50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무려 5만8763명이 달려붙었다. 평균 경쟁률은 무려 1175.3대 1에 달했다. 최고 경쟁률은 2만8007.5대 1로 전용면적 84㎡ A타입에서 나왔다. 단 2가구를 모집하는 데 청약통장만 5만6015개가 몰렸다.

이 단지는 3월 1순위 청약에 5만8021명



이 몰리며 평균 7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순위 청약에 이어 무순위 입주(‘죽고 쫓는다’의 속어)에서도 또다시 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청약 진행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1순위에 53가구 모집에 무려 1만3351명 몰려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나온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도 270가구 모집에 7346명이 청약통장을 쏟아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27대 1로 검단지구 사상 최고 경쟁률이다. 인천 부평구에서 나온 '힐스테이트 부평' (487가구) 역시 평균 84대 1로 청약 마감했다. 이렇다 보니 미분양도 빠른 속도로 팔려나가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 미분양 물량은 400가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천 집값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섭게 확산하던 3

월 한 달간 2.44%나 뛰었다.

인천 주택시장은 미분양 무덤이라는 오명을 수년간 달고 있었을 만큼 한때 주택 시장에서 외면받던 지역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2009년 인천 미분양 주택 가구수는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4539가구로 폭증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은 채 제자리 걸음하다가 2013년 5275채로 더 치솟았다. 전국 대부분의 도시가 미분양 가구를 줄여나갔던 와중에 인천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시장이 반전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다. 교통망 개발사업이 잇따라 발표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로 새 아파트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일단 잡고 보자'는 조바심이 기승을 부렸다.

여기에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기름을 부었다. 서울 주택시장을 바짝 쬐 지

난해 12·16 대책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올해 2·20 대책이 발표되자 수요자들은 규제 무풍지역인 인천으로 대거 눈길을 돌렸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대책이 오히려 풍선효과의 불쏘시개가 된 셈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인천 청라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아 장기간 회복하지 못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비규제 지역이 부각된 게 최근 반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선 개발 재료가 적잖게 널려 있다. GTX B노선 예타 통과한 데 이어 청라국제업무단지에 서울도시철도 7호선(가칭) 국제업무단지역 신설도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시장의 과열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분양권 전매가 본격적으로 막히는 8월 이후 투기 수요의 움직임이 꺾이면서 청약시장도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 여름까지 청약 열풍이 불다가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다만 전매 금지로 청약시장을 막으면 10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기존 주택시장으로 흘러가 집값을 더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울산 지웰시티 자이' 분양 돌입



신영은 울산 동구 서부동 일대에 들어서는 '울산 지웰시티 자이' 아파트의 견본주택을 13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이 단지는 모두 2개의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5층-지상 최고 37층 18개동에 총 2687가구(전용면적 59~107㎡) 규모다.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9개동, 1371가구(전용 59~84㎡), 2단지는 지하 5층-지상 37층 9개동, 1316가구(전용 84~107㎡)다. 시공은 GS건설이 맡는다.

울산 지웰시티 자이는 울산 내에서 1992년 '서부현대패밀리' 아파트 이후 약 30년 만에 최대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는 학교·공원·편의·업무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청약은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 27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6월 2일(1단지), 3일(2단지) 각각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내달 15~18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남영동 재개발 다시 속도낸다

2010년 업무지구 지정 후 부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지정 나서
 주거·상업 복합개발로 용도 변경

서울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인근이 주거와 상업·업무 복합지역으로 개발된다. 이를 위해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이들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대폭 증상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남영동 업무지구 제2,3구역 총 1만7658㎡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 중이다.

이 지역은 용산구 갈월동 87-1, 92-32 일대로 2010년 남영동 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총 6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이후 사업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인근 재개발 사업도 모두 중단됐다

이번에 갈월동 일대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이 지역 개발 사업은 다시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청은 이 지역

일대의 특성을 고려해 상업·업무 기능 활성화에 방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또한 용도지역을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대폭 상향해 용적률 등을 확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통상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간다.

용산구청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기여로 받겠다는 계획이

다. 향후 토지가 및 건축 계획에 따른 세부 논의가 필요하나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시설(오피스, 상가, 주택 등)이나 문화시설, 공용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로 조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는 주민공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문성영 기자 moon@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5에 게재됐습니다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HANSUNG
ENTERPRISE

*크래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쿠팡에서 구매가능합니다.

법원 “해고 임원 징계사유 인정 못해” 바디프랜드, 60억 주식인도소 파소

재직 당시 6만주에 대해 계약
해고된 해 액면분할에 10배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능”

바디프랜드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해고 임원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바디프랜드는 장외 거래가 주
당 1만 원 수준인 보통주 60만 주를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인 주당 2000원을
받고 해당 임원에게 넘겨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6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
을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주권
인도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바디프랜드는 2014년 당시 임원인 A 씨
와 보통주 6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A 씨가 사내 성폭행 의혹

에 휘말리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
등으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취소를 통지
했다. 더불어 A 씨에 대해 보직해임, 대기
발령 조치 후 해고를 통보했다.

같은 해 6월 무상증자, 7월 액면분할 등
을 통해 바디프랜드의 주식 총수는 786만
여 주에서 7868만여 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A 씨는 액면분할에 따라 증가한
보통주 60만 주에 대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
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증거 불충분
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법원은 바디프랜드가 A 씨로부터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12억 원을 받고 보
통주 60만 주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
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고, 무상증
자와 액면분할을 통해 행사 가격이 1주당
2000원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다”고 판단했다.

이어 “감사보고서에도 2014년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의 총주식 수가 10배 증가
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A 씨에게 부여된 6만 주는 60만 주로 변
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만큼 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
선택권 부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바디
프랜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헬스케어 전문기업 바디프랜드는
안마의자 판매업을 시작으로 제조, 렌탈업
까지 확장한 뒤 라텍스 매트리스 등 침대
렌탈사업, 정수기 등 생활가전 렌탈 사업
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4802억 원
을 기록했으며 유통주식 수는 7868만 주,
장외 거래가는 1만 원 안팎이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오후 5시에 제공하는 5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출퇴근길 마스크 안쓰면 지하철 못타요” 마스크를 착용한 많은 시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13일부터 서울시는 서울지하철 혼잡도가 150%를 넘어설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탑승을 제한할 방침이다. 뉴시스

대면 수업 미룬 대학들

이태원 집단감염 여파... ‘클럽 방문자 등교 금지’ 공지도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
해 이달 중 대면 수업을 계획했던 대학 대
부분이 일정을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
협)에 따르면 11일 대면 수업을 시작할 예
정이었던 대학 21곳 가운데 국민대, 인천
대 등 12곳이 일정을 미뤘다.

이들 대학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자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열어
대면 수업 연기를 결정했다.

국민대는 이날부터 예정된 실험과 실습
등 수업을 잠정 중단했다. 국민대 관계자
는 “대면 수업 재개 여부는 13일 논의를 거
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도 모든 대면 수업을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학교 내 이태
원 클럽 방문자와 확진자는 없지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강대는 ‘4월 말부터 5월 6일까지 이
태원과 신촌 소재 클럽을 방문한 학생들은
등교하지 말라’고 홈페이지에 공지한 상

태다. 서강대 관계자는 “11일부터 진행 중인
일부 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여
부를 결정하는 대책회의를 13일 열 예정”
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려대·동국대·한국외대는 등 일부
대학은 실험·실습·실기강의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제한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30명 미만 소형 강
의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대
면 수업에 앞서 교내 구성원들에게 강의실
내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안내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려대 관계자도 “방역을 강화하며 매
우 제한적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날 방역당국은 일부 대학의 대면
수업 재개와 관련해 가급적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13일 고3을 시작으로
예정됐던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순차
등교 수업 일정을 1주일씩 미뤘다.

손현경 기자 son89@

‘집단 성폭행’ 2심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2년 6개월

1심보다 형량 줄어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5년,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각 선고했다. 1심보다 정 씨는 1년, 최 씨
는 2년 6개월 형량이 줄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7일 내려질 예정
이었으나 정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이 기
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



정준영

최종훈

는 기일변경 없이 예정됐던 공판을 진행
했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
출했고 정 씨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
청을 받아들여 12일 오후 2시 30분으로 선

고를 연기한 바 있다.

정 씨와 최 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
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
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
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
소된 김모 씨, 권모 씨는 각각 징역 5년, 징
역 4년을 선고받았다. 허모 씨는 징역 9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수천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5월호 발매

BRAVO My Life
3월호, 5월호, 7월호
무엇이 더 좋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VIRUS

COVERSTORY 바이러스의 진실

PART1. 코로나19로 많은 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
PART2. 바이러스를 둘러싼 19가지 궁금증
PART3. 두 얼굴의 바이러스, 현명하게 마주하기
PART4. 바이러스 퇴치 면역력이 답이다
PART5. 허구가 만들어진 '제2의 바이러스'

신라산과 만난 사람들

높은 소년
가수 이경조의
자유로운 영혼처럼...

우리 노래의 길을 잇는
국민인 김경림
대한민국 단 하나의 소리로
거둔다기 위한 여정

주얼리계
실과 스토리를 새겨 넣다
헤어에서 더 빛나는
보석 디자이너 김영희

다들 어썸
남은 열매에
사랑의
기쁨이
있어

김혜영의 느린 여행
목호중대마을의 추억 앨범 '논골담길'
시집 '목호를 읽고 목걸이를 안 마실 수 없다'
산채의 SNS 글을 보고, 가려 속 목호를 떠올렸다.
목호중대마을의 비좁고 기차편 골목 골에서 마주했던
김부은 바다, 슬레이트집 담벼락에 그려진 소박한
벽화들, 목호중대 특일 민박집에서 청문으로 감상했던
목호의 방 풍경들. 유난히 목호에 끌리는 건, 왜일까.
좋은 건 이유가 없다더니 목호가 그렇다.

생생 부동산 현장 주거·상업·행정 갖춘 탄탄한 입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가 수도권 동북부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다. '차통팔달' 교통
호재를 비롯해 다양한 개발 운동이 붐고 있는 것.
다산신도시의 주택과 상권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찾아가 살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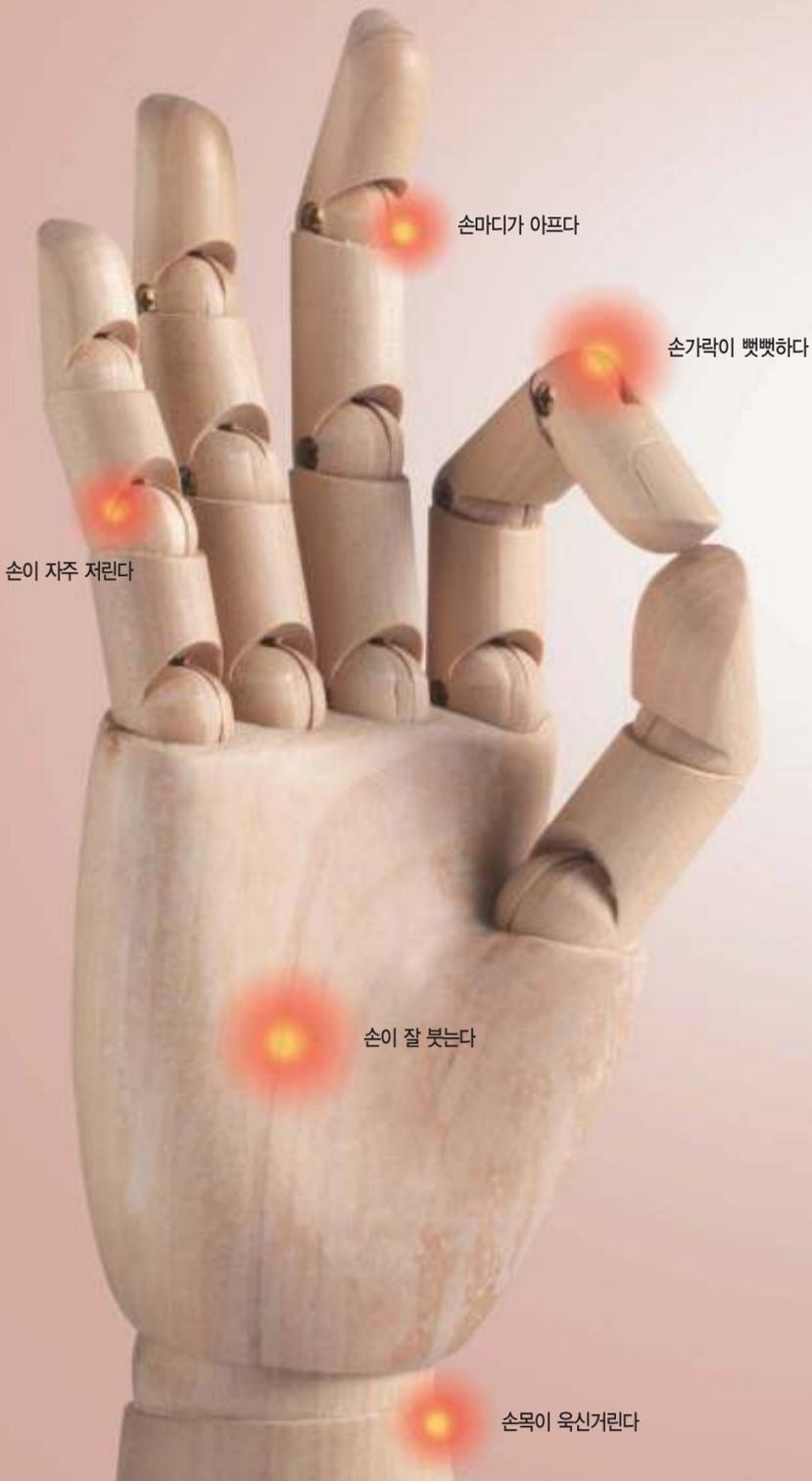
고수열전
삶을 통해 긍정 못할 게 없다
종교를 뛰어넘는 곳에 예술이 있을 것이다. 예술이란
자유로운 정신의 산물이며, 그 어떤 권능에도 휘둘리거나
고리치지 않는 자율적 행위이며, 그러나 자유 혹은
자율을 근간으로 삼기가 어렵다. 역사 스텝이 꼬이고
워킹계 좁은 세계에 갇히는 게 사립이다. 신의 이름은
간절히 불러 무언을 구하고서도 돌아서면 외로워 보채는
게 사립이다. 도들이표처럼 자주 되돌아오는 자문은 하나.
너는 누구인가?

시니어 반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영양 만점 달걀로 채운
볼스푹 도시락

투자 고수와 놀자
김혜영 하나은행 은퇴설계센터 수석연구원
노후 자산관리
“넓게 보고, 깊게 가라”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HUSIM



딱딱하게 굳은 손의 피로

플라즈마 '휴심' 손마사지기로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품질, 신뢰받는 서비스 - 휴심핸드케어

- ◎원하는 부위 지정 관리! 기기 앞쪽이 개방되어 있어 손가락, 손바닥, 손등, 손목까지
 - ◎손으로 주무르는 것처럼! 3가지 강도와 성별에 따른 맞춤으로 강력한 공기압 에어백
 - ◎혈자리를 찾아 콕콕! 수지침 지압법과 동일한 휴심만의 특허 마사지 방식
 - ◎차갑고 시린 손에 딱! 온열마사지가 가능한 히터 기능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마사지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쉽고 자유로운 간편버튼, 가벼운 무게, 무선충전방식
 - ◎업그레이드 된 지압효과! 엠보싱 내피천 적용으로 손등까지 빈틈없이 누르는 지압
 - ◎플라즈마 기능 탑재! 기기 내 음이온과 양이온이 함께 발생되어 손살균 작용에 도움
- ※아담 핸드케어 적용



가정의 달 고객감사 특별 할인!

*기간 : 2020년 5월 31일(일)까지
*수량 : 모델별 500EA 한정(선착순)

지금, 휴심 손마사지기를 주문하시는 모든 고객님의
계는 **최대 33%할인**된 가격으로
프리미엄 손마사지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분께 아름답고 건강한 손을 선물해 보세요~



아담 핸드케어 I
~~₩147,000~~ ₩99,000



토브 핸드케어 I
~~₩159,000~~ ₩108,000

*이런 분께 권합니다 집안일이 끝이없는 주부 | 핸드폰 사용이 많은 학생 | 컴퓨터 사용이 많은 직장인 | 손, 손목 사용이 많은 미용사 및 요리사

3개월 카드 무이자 할부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아람비스토어



주문전화 080-470-8888

“TV 사며 ‘환경보호 가치 실천’ 만족감은 덤이죠”

친환경 포장재 만든 삼성전자 ‘에코 패키지’ 개발자들

포장재로 가구·물건 만들 때 원하는 모양 낼 수 있게 디자인 QR코드 매뉴얼 비용절감 효과도...CES2020 ‘혁신상’ 받아

“뛰어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라는 가치도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전 세계에 출시되는 라이프스타일 TV 포장재에 업사이클링 개념을 적용한 ‘에코 패키지’를 도입했다. 포장재로 가구, 물건 등을 만들 때 소비자가 원하는 모양으로 손쉽게 잘라낼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바꾼 것이다.

신제품 개발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외중에도 친환경 포장재를 고안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삼성전자는 뉴스룸을 통해 에코 패키지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삼성전자 제품디자인그룹 윤대희 씨는 “최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가 많다”며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실천했다”는 만족감을 주기 위해 에코 패키지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있으면서도 튼튼한 패키지를 구상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개발팀은 처음 패키지에 도면을 그려 제공하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적용했을 때 다양한 매뉴얼을 제공할 수 없는 문제가 예상됐다.

많은 고민 끝에 개발진이 택한 방법은 ‘점 패턴’이다. 윤 씨는 “점 5개마다 큰 점이 찍혀 있고, 도면이 센티미터(cm)가 아닌 점의 개수로 제공되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재지 않고도 누구나 쉽게 가구를 만들 수 있다”며 “완성했을 때 예쁘게 보이는 심미적인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FX(퓨처 익스피리언스) 디자인그룹 황수현 씨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지금의 구조를 만들게 됐다”며 “사람들에게 에코 패키지를 주고 실제로 만들도록 하는 테스트를 거치는 등 다양한 피드백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패키지 상단 QR 코드로 제공되는 매뉴얼 역시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채택된 방법이다. FX디자인그룹의 손성도 씨는 “QR 코드는 별도 앱을 설치하는 과정 없이도 빠르게 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나중에 도안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때도 편리하다”고 덧붙였다.



에코 패키지를 들고 있는 삼성전자 디자이너들. 왼쪽부터 FX(퓨처 익스피리언스) 디자인그룹 황수현·손성도 씨, 제품디자인그룹 윤대희 씨.

실용성을 갖춘 에코 패키지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소비자에 주는 가치를 인정받아 ‘CES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손 씨는 “영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디진과 협업해 29일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에코 패키지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를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은 양석준 외자운용원장 내정

한국은행은 12일 신임 외자운용원장에 양석준(54) 국제국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내정자는 외화자산운용과 관련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세계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훌륭한 조직관리능력 등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실제 그는 외자운용원 내에서 운용지원부장, 자금결제팀장, 외환운용팀장, 글로벌정부채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은은 향후 외화자산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과 인력 운용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소정의 채용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다. 외자운용원장은 특급대우로 보수 등 처우 수준은 한은 임원인 부총재보급과 같다. 최초 계약은 3년이며, 계약만료 후엔 상호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 2년 이내에서 재계약이 가능하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비보존, 박홍진 부사장 영입

비보존은 글로벌 헬스케어 컴퍼니로 도약하기 위해 자사와 관계사인 루미마이크로에 각각 제약사업부를 신설하고 이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으로 박홍진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박홍진 부사장은 1962년생으로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임상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오츠카제약에서 공장 신축,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GMP 승인, 제제 및 합성 플랜트 설계 준공뿐만 아니라 임상개발, 약기협상 및 라이선스 아웃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베테랑 경력자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KAIST 조정훈 학술상에 항공우주연구원 조동현 박사

‘제16회 KAIST 조정훈 학술상’ 수상자로 조동현(39·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박사가 선정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조동현 박사 외에 윤용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박사과정, 이현민 고려대 기계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임선주 공주사대부고 학생 등 3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13일 KAIST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조 박사는 우주 개발 분야에 총 6편의 SCI급 논문을 게재했으며, 35편의 학술대회 논문, 40여 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등 다수의 항공우주 분야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박사는 2011년부터 국내 운용 위성에 대한 우주 파편의 충돌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KARISMA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운영 중이다.

KAIST 조정훈 학술상은 2003년 5월 KAIST 로켓시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조정훈 명예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재훈 기자 yes@

제2회 한미 젊은 의학자 학술상 김수진 고려대 응급의학과 교수

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제2회 ‘한미 젊은의학자 학술상’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의학과 김수진(45) 교수가 선정됐다.



한미약품과 한국여자의사회는 젊은 여의사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술연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2019년 제정돼 올해 2회째를 맞았다.

김 교수는 응급의학 관련 학술연구활동, 정부정책 프로젝트 자문, 각종 특허출원 등을 통해 의학 발전 및 국내 응급의료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근 3년간 김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은 SCI급 11편을 포함해 25편에 달한다.

유혜은 기자 euna@

양진모 현대차 부사장 ‘자동차의 날’ 은탑산업훈장 수조경제·동반성장 공로...이희방 이노테크 대표 ‘동탑’

양진모<사진 앞쪽 오른쪽 두 번째> 현대자동차 부사장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12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자동차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자동차의 날은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해 2004년도부터 매년 개최됐다.

현대차의 양 부사장은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부품업체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이희방<앞쪽 왼쪽 두 번째> 이노테크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 한국형 디자인 표준화 설계로 조향장치 부품 국산화 등의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지엠 파워트레인 개발 총책임자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를 글로벌



GM 내 파워트레인 개발 핵심 연구소로 발전시킨 황준하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전무이사과 르노-닛산 동맹의 파워트레인 핵심부품을 국산화 개발·양산한 임석원 르노삼성자동차 상무보가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대리점 대표들 만나 “위기 극복” 다짐한 쌍용차 노조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조는 12일 “대리점 협의회를 비롯해 노·사·민·정. 협의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상생 협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일권 쌍용차 노조위원장은 지난 달 29일 평택공장에서 대리점 대표들로 구

성된 대리점 협의회의 임원진을 만나 위기 의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정 위원장은 “영업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임원진은 이번 대리점 협의회의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6일 중부지역영업본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광고대리점을



방문(사진)하는 등 5월 한 달간 전국 9개 영업지역본부를 차례로 방문해 영업 일선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예산실장 안도걸 ◇국장급 전보 △부총리비서실장 강원구 △부총리정책보좌관 박금철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김완섭

◆고용노동부 ◇3급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민재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최관병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유통정책관(전담직무대리) 유성욱

◆한국생산성본부 ◇승진 △인재개발경영지원센터장 강익선 △전보 △경영전략본부장 이상열 △교육혁신본부장 장영준 △전략홍보센터장 전승훈 △글로벌신성장센터장 김현동 △기획재무센터장 장인상 △K-LAB장 안슬기 △지수기획센터장 이수복

◆KBS △보도본부 시사제작국장 임정원 △전략기획실 대외협력국 대외협력부장 최

영철 △법무실장 유해남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정치국제] 정치부장 최민호 △동일-외교부장 이경호 △보도본부 통합뉴스룸[경제] 경제부장 임승창 △문화복지부장 김상협 △보도본부 통합뉴스룸[사회재난] 재난방송센터장 김민철 △사회부장 정홍규 △네트워크부장 안세득 △경인취재센터장 유성식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방송뉴스] 뉴스제작1부장 정창준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디지털뉴스] 디지털뉴스기획부장 김대영 △보도본부 통합뉴스룸[보도영상] 영상취재1부장 김상하 △영상취재2부장 이경구 △보도본부 통합뉴스룸탐사보도부장 정수영 △보도본부 시사제작국 시사제작1부장 조현진 △보도본부 스포츠국 스포츠기획부장 이원규 △스포츠취재부장 정중희 △스포츠콘텐츠제작부장 이성훈 △보도본부 보도그래픽부장 강경아 △장원방송총국 보도국장 김현수

부음

▲김영자 씨 별세, 배경훈(진주제중의원 원장) 씨 부인상, 백택영(삼성물산 리조트 전략마케팅팀 상무)·우경·강원 씨 모친상 = 12일,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055-750-8448

▲김아수 씨 별세, 김병구(매일신문 편집국 부국장)·병필·병철 씨 부친상, 최은영(대구경실련 조직국장)·홍효종 씨 시부상 = 12일, 경북 고령영생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8시, 054-956-4455

▲류동경 씨 별세, 정유호(안동MBC 콘텐트제작국장) 씨 모친상, 조신애(안동경안고 교사) 씨 시모상, 황동고(선진사료상주대리점 대표) 씨 장모상 = 11일, 안동 성소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4일 오전 6시 40분, 054-852-4404

▲조길영 씨 별세, 조동인·동언(판소리

명창)·병건(목사)·용성(그래픽 디자이너) 씨 부친상 = 11일,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10시, 02-2152-1349

▲김삼녀(권사) 씨 별세, 서연아·남구(봉원중 부장)·영숙·정학(국민일보 종교국 미션 편집부 차장) 씨 모친상, 이석현(상장중학교 교장) 씨 장모상, 박정은·김정희 씨 시모상 = 11일, 국립강원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지하1층 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33-254-5611

▲박경득 씨 별세, 정재순·영미(양산성산초 교사)·미옥(부산 금곡고 교사)·자현·재화(신한금융투자감사부 차장) 씨 모친상, 심재일(에스지원테크 기술교문)·이우교(에너지스 연구소장)·김승일(부산일보 편집국 디지털센터장) 씨 장모상 = 11일, 부산 인창요양병원 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13일 오전 9시, 051-464-5820

중국을 지금



박승찬
중국학과 교수
(사)중국경영연구소 소장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은 이미 5년 전에 "앞으로의 시대는 IT가 아니라 DT(Data Technology)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나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 선택 투자로 5G(5세대 이동통신) 및 빅데이터 인프라를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리바바가 2016년 상하이 1호 매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신선유통매장 '허마셴성(盒馬鮮生)'을 가보면 DT 시대가 이미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가 바꾸는 중국 사회

따라서 별도의 유통기한이 필요 없다. 해당 날짜에 맞춰 필요한 상품을 바구니에 그냥 담으면 된다. "이거 다 못 팔면 어떻게 처리 하나요?"라고 관리자에게 질문하니, "고객 평균 데이터가 구축돼 있어 재고는 거의 없다."

이는 당일 판매가 가능한 양을 빅데이터를 통해 미리 예측 분석해 매장에 진열함으로써 철저한 재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별 평균 방문 고객 수가 데이터화돼 있고, 그중에서 어떤 고객이 어떤 신선 제품을 얼마나 사는지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이다.

개, 각종 검사 테스트 결과보고서 등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가품(假品)과 중국산 제품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 제품 이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고객의 신뢰도를 제고시킨다.

중국의 빅데이터 구축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중심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판 구글인 바이두의 경우 웹 및 모바일 검색을 통한 데이터와 바이두 지도를 통한 14억 명 중국인의 이동 동선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고, 텐센트는 10억 명의 위챗페이 사용자 데이터 구축 및 분석, 활용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경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출발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9월 빅데이터 산업발전의 중장기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발전촉진행동강요'가 발표되면서, 그 목표와 발전방향이 명확히 제시됐다.

적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구이저우성을 중국 최고의 빅데이터 산업기지로 변모시켰다. 구이저우성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국(局)이 하나 있다. 바로 '빅데이터 발전관리국'으로 빅데이터 산업 인프라 발전을 전담 관리하는 기구이다.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책과 지자체의 인적자원 및 행정우대 정책 그리고 관련 기업의 강렬한 혁신 의지라는 3박자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결과이다. '빅데이터는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는 말을 한다.

CEO 칼럼

유희숙
1492피앤씨애드 대표
한국제도전중소기업협회장



미증유의 시대, 다시 본 '페스트'와 '매트릭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이며 이야기할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되새겨온,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의 마지막 문장이다. 원래 'The road not taken'은 가지 못한 길, 가보지 않은 길, 걸 어보지 못한 길 등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간은 '가지 않은 길'로 주로 알려져 왔다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미증유의 시대를 보내며 '걸어보지 못한 길'로 이제 제목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문득 생각해본다.

전 세계가 어떤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극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요즘,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와 영화 '매트릭스'가 겹쳐 떠오른다.

프랑스의 대표적 실존주의 작가인 알베르 카뮈가 소설 '페스트'에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폐쇄된 도시, 죽음이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함께 하는 연대'라는 희망에 대해 얘기했다면, 영화 '매트릭스'는 인간의 기억마저 AI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현실의 세계 매트릭스 그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지배되는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전 세계에 한류 붐을 일으킨 문화강국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창의적 강점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의 실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의 존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지 모른다.

1947년 출간된 소설 '페스트'를 2020년 다시 읽어보면서 인간이 함께 연대해 가는 것이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희망인지, 1999년 개봉된 영화 '매트릭스'를 다시 보면서 앞으로 닥쳐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상상해야 할지를 20년 전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놀랍다.

우리는 전 세계에 한류 붐을 일으킨 문화강국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창의적 강점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의 실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의 존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지 모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산업적으로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 세계에 한류 붐을 일으킨 문화강국의 주인공이다. 이러한 창의적 강점으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의 실재, 눈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의 존재가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될지 모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산업적으로도 리드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건과 장소, 모든 촬영의 포인트들을 수 천 번, 수만 번 철저히 계산하여 구성해낼 수 있을 때 가상은 진실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간 많은 할리우드 SF영화들이 미래 사회를 많이 예측해낼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은 긴급자금을 푸는 것으로 당분간 연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소설처럼 상상하고 영화같이 창의적으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을지 모른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도리스 데이 명언
"중년에 정말로 무서운 것은 당신이 다 성장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 맑고 서민적인 용모와 정확한 창법으로 많은 히트곡을 남긴 그녀는 뮤지컬 무대는 물론 '돌이서 차를' '파자마 게임' 등의 영화에도 출연했다.

☆ 고사성어 / 지족지지(知足知止)
분수를 지켜 너무 탐내지 않음[知足]과 분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아는 일[知止]을 뜻한다.

☆ 시사상식 / 생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체육관이나 도서관, 문화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처럼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말한다.

☆ 고운 우리말 / 손갖
눈이 부시지 않게 하거나 멀리 보기 위해 손을 펴서 이마에 대는 것을 뜻한다.

☆ 유머 / 고속도로의 노인
노인이 아들 집에 가려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한참 달릴 때 아들한테 "아버지, 지금 고속도로에 계시죠?"라는 전화가 왔다.

"정신 나간 놈이구먼. 그런데 한 대가 아니다. 시방 수백 대가 역주행하고 있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사수첩

김보름 사회경제부/fullmoon@



검찰 내부의 알레르기 된 '조국 사건'

데, 조용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뭇 달랐다. 구속 기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과 달리 뒷선에서는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정해둔 이유가 있는 만큼 인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다"는 얘기가 나왔다.

장검사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지만 주요 지휘는 기소 당시 3차장검사였던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검찰 인사로 반년 만에 부장검사, 차장검사, 지검장으로 이어지는 조국 일가 수사 지휘라인 전체가 바뀌면서 기존 수사팀은 두 개의 보고-지휘 라인을 갖게 됐다.

검찰 내에서 '조국' 텍스트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눈치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다. 최근 조국 일가 공판에서 전해지는 수사팀의 열기와 달리 지휘부는 언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첫 공판이 열린 8일,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고형근 부장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을 찾았다. 최근 인사로 대구지검으로 발령 난 고 부장검사는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맡고 있는 반부패 2부에 파견과 직무대리 형태로 회의와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논설실장 추창근, 편집국장 김덕현. Includes contact info and subscription rates.

사업보고서 A to Z

주변의 권유든 기술적 분석이든 종목 선택 기준을 알기위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투자종목의 기초적인 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한다면 상황이 다르다. 돈에 대한 모욕, 미래에 대한 직 무유기라고 믿는다. 기업의 내용을 파악 하는 게 생각처럼 어렵지 않다. 모든 정답 은 사업보고서에 있다.

일반 투자자가 많게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챙겨 본다는 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소중한 돈을 투자하면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 사업보고서를 간과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 문제다. 나중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울어봐야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신에게도 땀땀하지 못하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읽다 보면 감은 오 기 마련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회사는 연 간, 반기, 분기별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 야 한다. 언제, 누가 설립했고 어떤 과정 을 거쳐 성장해 왔는지 한눈에 볼 수 있 다. 특히 어떤 사업을 하고, 무슨 제품(서 비스)을 만들고, 매출 실적이나 시장점유 율은 어떤지, 얼마를 벌고 비용을 제외한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등 회사 살림살이 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다. 누가 얼마 나 주식을 보유했는지, 주요 임직원은 누 구이고 급여 수준은 어떤지 등등 알토란 같은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실적 이다. 분기나 반기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연간 사업보고서는 한 해의 실적을 정리 하는 만큼 의미가 크다. 또 해당 사업 연 도뿐 아니라 3년 이상의 실적이 정리돼 있

데스크칼럼

이채용

자본시장1부장



어 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재무제표를 통해 매출이나 손익 같은 실 적과 부채 비율, 현금흐름 같은 안정성을 파악하고, 투자 및 연구활동이나 기술 개 발, 시장 전망, 점유율 등으로 잠재성을 예상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재무제표는 회사의 살림살이를 회계 장 부로 정리한 표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가 가장 중요 하고 또 많이 활용된다.

대차대조표는 회사의 재산 상황을 자산 과 부채, 그리고 자본으로 구분해서 정리 한 표다. 자산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장설비, 토 지, 주식, 현금 등이 포함되고 현금화하기 쉬운 정도에 따라서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으로 나눈다. 부채는 남에게서 빌린 돈 을, 자본은 자기 돈을 말한다. 부채가 많 으면 빚이 많다는 뜻이므로 당연히 안정 성 면에서 좋지 않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반면에 주식을 공모해서 주주로부터 돈을 모으면 회사의 자기자본이 된다.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에서 각종 세금과 이자비용, 경비 등을 제외한 손익이 어떻 게 되는지 정리한 표다. 매출액이 많아도 이익이 나지 않으면 헛장사를 한 것으로 보면 맞다. 그래서 무조건 매출만 많은 것

보다 수익을 많이 남기는 쪽이 알찬 회사 다. 특히 꼼꼼히 살펴볼 항목이 주당 손익 이다. 회사 규모가 커서 매출과 수익이 많 이 나지만 주당 수익이 낮다면 주주 입장에서 매력은 떨어진다. 반면에 매출이 나 수익 규모는 작아도 주당 수익이 높 다는 것은 투자된 자본금 대비 실적이 좋 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 입장에서 작아 도 알짜 회사인 셈이다.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현금의 흐름, 즉 유동성에 관한 표다.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현금이 많아서 쌓이면 유동성 면 에서 안정적이다. 반면에 피가 잘 안 통하 면 동맥경화에 걸리듯이 영업활동이 원활 해도 자금 흐름이 막히면 소위 말하는 흑 자도산을 하게 된다. 장사는 잘되는데 당 장 외상대금을 갚을 돈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금흐름표의 현금 상황 이 나쁘면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 해 주가가 폭락할 수 있다.

대차대조표로 회사의 재산 상황, 손 익계산서로 기업활동과 실속, 현금흐름 표로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 는데 이들을 일반인이 일일이 분석하기 는 버겁다. 이럴 때 간단하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약재무제표다. 각종 재 무제표의 핵심 내용을 하나의 표에 모아 놓았기에 한눈에 회사의 성적표를 확인하 고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자산, 부 채, 자본, 실적과 손익 등 회사의 모든 상 황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 를 한 번만 꼼꼼히 읽고 투자를 결정한다 면 놀라운 투자의 세계를 경험할 것으로 확신한다. mywish73@

박은평의 개평(概評)

금융부 차장



재택근무, 온라인 개학, 화상회의. 코로 나19가 바꾼 우리의 일상이다. 사람들을 만나도 악수를 하지 않고, 회식은 줄었 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아프면 집에서 쉬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은 생활 의 일부가 됐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으로 지역사 회 2차 감염과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 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 다"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세상은 돌아간 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 보니 언택트 (Untact) 산업이라는 비대면·비접촉 산 업과 경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IT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환경은 전부 터 구축돼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그 활용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언택트는 안

언택트의 명암

전한 콘택트를 위한 연결 방식이다.

언택트의 장점은 사용자 대면 없이 실 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일을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은행권을 뒤흔들었던 오픈뱅킹 서비스로 금융상품 간 비교가 쉬워져 그만큼 소비자의 선택 권이 넓어졌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권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더 욱 빨라지는 것을 가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오픈뱅킹 경쟁에 다시 불이 붙고 있 고, 모바일 앱 자산관리서비스도 강화하 고 있다. 2금융권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 대하고 있다. 카드신청부터 수령, 명세서 조회 등 모든 과정을 앱으로 진행한다.

앞으로는 비대면과 대면이 융합된 온택 트(On-tact) 시대로 갈 것이다. 온택트는 비대면을 이르는 언택트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이다.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이 강화되면 서 판매자와 구매자, 파트너 간 활발한 피 드백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과 대면의 융합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 연계로 각각의 장

점을 살리는 조화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상하는 비대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업계의 경쟁 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누가 먼저 주도 권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업계 1위가 달라 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대면 사회 안 전망 구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전 분야에서 비대면 등 대체기술이 일상화되 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자 와 구직자에게 독이 되서는 안 된다. 정부 가 육성하는 비대면 사업과 관련, 규제 완 화 등도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

또 저소득층과 고령층 등 비대면 사회 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에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사 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와 정치권의 논의 도 활발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추진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전개되는 지 금, 비대면과 대면이 조화로운 동반성장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pepe@

사설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줄이는 게 맞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자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완화 가능성 을 시사했다. 정 총리는 "종부세는 부 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방점이 있는 제도"라며 "입법 취지 를 충족시키는 게 옳다"고 말했다. 종 부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주택자는 존중해 세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9억 원(공동명의는 12억 원) 이상에 과 세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2009 년에 정해진 후 그동안 한 차례도 바 꾸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상 위 1~2%의 고가주택이 대상이었으 나 그동안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 을 넘고 있다. 그런데도 세금 부과기 준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중산층까지 종부세를 내 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250만여 가구 중 종부세 대 상인 공시가 9억 원(시세 12억~13 억 원) 초과 주택은 28만여 가구로 전체의 11%다. 작년보다 8만 가구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기준 상향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4·15 총선과정에서 1주 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약속한 바 있다. 비싼 주택이라 해도 실수요 의 1주택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다. 특히 보유한 주택 한 채 말고 별 소득 이 없는 은퇴생활자들이 연간 수백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면서 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 세율을 종전보다 0.1~0.3%포인트 올리는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일단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부과 대상과 세금 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게 돼 있다. 정 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80% 로 높이고 있다. 올해도 3월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4.8%나 한꺼번에 올라 종부세 부담 또한 급증한다.

지난 11년 동안 전반적인 집값 상 승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과기준이 조정되지 않은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 합리하다. 과거의 잣대로 9억 원 이 상을 고가주택으로 보아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도 무리다.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을 12억 원 수준으로 높 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무엇보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보유자에 까지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의 충격으 로 우리 경제는 마비 상태다.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고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수백조 원의 돈을 푸는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당장에는 한 푼이라도 가계의 세금을 줄여주어야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 지금 집값 또 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세금만 늘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적어도 1 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빨리 덜어져 야 한다.

세무, 특! 공동임대사업 대출이자 비용처리

공동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대출의 지급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일 반적으로 단독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본인 자금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급 한 후에 보증금이나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다. 이때는 대출의 지급이자에 대 해 시비 없이 경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정이 다르 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차입금이 부동산 매수자금의 용도로 사용됐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었다면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 영위 시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 니면 공동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 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이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 자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부동산 임

대사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작 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공동경영, 지분 율, 출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금과 중 도금은 출자금으로 총당하며 나머지 취득 자금은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으로 총당하 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대출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 장의 임대 수입 금액에서 지급하기로 약 정하고, 지분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동업 자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해야 한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비용 처리는 감 가상각비와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 처리이 다. 감가상각비의 경우 부동산 양도 시 취 득가액에서 차감된다. 하지만 지급이자는 당기 처리 비용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시 반영하지 않고 매년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된다.

임대사업 개시 전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임대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도록 하자.

장은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MOHAVE
THE MASTER

빛나지 않는 화려함 완전한 몰입 그리고 강인함



GRAVITY 탄생

| 그라비티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 | 20인치 블랙도장 휠 | 알칸타라 인테리어 | 1열 도어 무드램프 |

